

아름다운 교육혁명!  
Beautiful Revolution for Education

# 봄이 오는 소리

## A Harbinger of Spring

박춘근 저  
Prof. Dr.-Ing. C. K. Park



도서  
출판 지구촌교육

아름다운 교육혁명

## 봄이 오는 소리

Beautiful Revolution for Education

**A Harbinger of Spring**

2007년 3월 29일 초판발행

저 자 : 박 춘 근

발행인 : 박 상 기

발행처 : 도서출판 지구촌교육

인 쇄 : 광원인쇄사

등록번호 : 제2007-6호

ISBN : 978-89-959275

Beautiful Revolution for Education

**A Harbinger of Spring**

March. 29. 2007. Printed in Seoul Korea

e-mail: [psk4020@empal.com](mailto:psk4020@empal.com)

주문전화 : 019-292-2653

값 10,000원

\* 본 책의 내용은 저자와의 문서상 협의 없이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인지부착을 생략합니다.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프롤로그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교육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는 정말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봄이 되자, 여기저기서 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텃밭에는 매화꽃 복사꽃 살구꽃이 만발하고,  
노오란 개나리는 푸르른 싹을 불러들일 준비를 서두릅니다.

꿈, 희망, 싱그러움의 상징인 봄!  
은 천지는 희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봄 세상이 되었건만  
우리들 주변에는 아직도 꾀꾀 얼어붙은 흑한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를 향해 숨통을 조이고 있건만,  
방향 감각을 잃은 대한민국 호는 과연,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도덕은 무너지고, 가정은 해체되고, 청년실업자는 늘어가고  
농촌총각은 외국처녀를 수입해서 장가를 드는 세상!  
점차, 노인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젊은 남녀는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

그토록 영원하던...

자유, 민주, 민족, 통일 같은 말들도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 대한민국! 정말,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듯이,  
무언가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정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조단군께서 이 땅에 처음 나라를 개국하실 때  
하늘에서 하사 받으신 국가 통치비법 3가지(천부인)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칼(정치, 법)과 북(경제, 언론), 그리고  
거울(교육, 문화)을 효과적으로 개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위기는 바로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세계시장의 흐름은 칼의 시대에서 거울의 시대  
즉, 무력전쟁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즉, 문화전쟁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시스템 하나만 제대로 바뀌어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대학에 갈 수 없던 시절,  
단돈 45만원을 들고  
학비가 필요 없는 나라 독일로 유학을 떠나,  
세계적인 명문 공과대학인 뮌헨공대에서 공학박사가  
되었습니다.

국가교육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득한 저는,  
공학박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도,  
돈이 없어도,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키워 부강한 나라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부단히 연구하여 왔으며,  
부자나라가 되는 혁명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 1월,  
'새로운 교육정책과 국가시스템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격려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교육혁명>의 내용 중에서  
교육시스템 부분을 발췌하고 재구성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도움이 되시도록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치도, 군사도, 외교도, 경제도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듯이,  
국가의 흥망은 바로 교육을 여하히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독자여러분!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혁명적인 새로운 제안과  
국가발전 시스템에 대한 고급정보와 전략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 **봄이 오는 소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술과 문화강국으로 앞당겨 줄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아름답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2007년 2월 4일 (단기 4340년)

비봉산 기슭에서

저자 공학박사 박 춘 근

# 목 차

**프롤로그 - 교육하나만 바뀌어도..... / 5**

**제 1 장 미래를 바꾸는 교육의 힘 / 17**

1.1. '우리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 19

1.2. 굼벩이는 구르는 것이 천직/ 21

학자 와 명장

아름다운 천직

학문이란? 학자란?

**제 2 장 교육을 올바르게 하려면? / 25**

2.1. 교육을 올바르게 하려면? / 27

사람을 만들까, 돈 버는 기계를 만들까?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님

훌륭한 엄마가 훌륭한 자녀를 만든다

대학교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제 3 장 한국교육의 허와 실 / 31**

3.1. 선다형 시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33

3.2. 창의력이 거부를 만들어 주는 세상인데 / 37

3.3. 생계비를 줄여 사설학원에 갖다 줘야 하는 나라? / 41

3.4. 대안학교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나라! / 43

## **제 4 장 부자들의 교육과 빈자들의 교육 / 45**

- 4.1. 양극화로 걸도는 학교수업 / 47
- 4.2. 조기교육의 허상 / 49

## **제 5 장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어! / 53**

- 5.1. 청년실업 100만 시대 / 55
- 5.2. 대학의 강철 밥통, 실력인가 로비인가? / 57
- 5.3. 대학에서조차, 가짜들이 판치는 나라! / 59
- 5.4. 국가를 망친 공교육, 왜 어디서 왔는가? / 61
- 5.5. 입학시험만 합격하고, 등록금만 내세요? / 63

## **제 6 장 아름다운 교육혁명을 위하여 / 65**

- 6.1. 대학의 입학과 졸업, 무엇을 어떻게 바꿀까? / 67
- 6.2.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잘 살 길이 있는 나라 / 74
- 6.3. 대학, 제대로 교육시켜야 살아남는다! / 90
- 6.4. 대학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 94
- 6.5. 5년이면 교육을 확 바꿀 수 있다! / 100

## **제 7 장 부자나라가 되기 위하여.. / 101**

- 7.1. 국가도약을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 / 103
- 7.2. 새로운 학제, 새로운 학교! / 109

## 제 8 장 교육혁명의 다섯 가지 원칙들 / 125

- 8.1. 교육혁명의 다섯 가지 원칙들 / 127
  - 제 1 원칙: 인간의 존엄성과 홍익사상
  - 제 2 원칙: 기회 평등에 의한 교육
  - 제 3 원칙: 소명을 따르는 교육
  - 제 4 원칙: 인재를 중시하는 교육
  - 제 5 원칙: 가정교육을 반석으로 하는 교육

## 제 9 장 도약을 위한 새 국가교육 시스템 / 135

- 9.1. 국가명장인가, 국가박사인가? / 137
  - 교육과정의 두개의 축, ‘국가명장’ 과 ‘국가박사’
  - 진로 조정이 가능한 전학제도
- 9.2. 산학병행교육제도 (Dual-System) / 139
- 9.3. 대학입학의 조건 및 제도에 대하여 / 142
  - 대학입학조건 현장실습제도
  - 충실한 소명의식이 대학입학 조건
  - 외국인에게도 대학정원의 5%를 열어준다
- 9.4. 합리적인 대학운영 정책 / 150
  - 학점제 폐지 및 대학졸업국가고시 실시
  - 학자금 대여정책
  - 효율적인 대학학습운영
- 9.5. 국가박사학위제도와 교수임용정책 / 155
  - 국가박사 학위제도
  - 대학교수 임용정책
- 9.6. 국립대학들을 하나로 편제 개편 / 158

## **제 10 장 국가명장 제도에 관하여 / 163**

- 10.1. 명장들이 과학기술강국 만든다! / 165
- 10.2. 유럽의 장인교육이 길러낸 한국인 명장들 / 167
- 10.3. 산업선진국의 역사는 바로 장인의 역사 / 170
- 10.4. 고부가가치는 명장들의 손끝에서 / 173
- 10.5. 국가장인교육제도 실시와 활성화 방안 / 176

## **제 11장 새로운 기적, 봄이 오는 소리! / 179**

- 11.1. 이 땅에, 봄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 181
- 11.2. 존경받는 선생님, 능력 있는 학생! / 183
- 11.3. 유능한 공무원이 넘치는 나라! / 185
- 11.4.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 188
- 11.5.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 / 191
- 11.6. 세계 각국의 인재를 육성하는 스승의 나라 / 197

## **제 12 장 에필로그 / 201**

- 12.1. 교육혁명, 그것은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 203
- 12.2. 독자들로부터 날아온 편지들 중에서... / 206
- 12.3. 새로운 봄을 기약하며... / 210

♣ 책속의 작은 책 ♣

박춘근 박사의 교육체험기

**돈 한 푼 안들이고 박사까지 공부하기 /213**

1. 선진국이란? / 215
2.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 / 217
3. 독일의 인재선발제도 / 220
4. 독일의 교육과정- 대학입학에서 박사학위까지 / 224
5. 유럽의 국가박사 제도 / 237
6. 원헌공대의 운영과 재정 / 240
7. 국가지도자는 대학시절부터 키운대 / 245
8. 생활비를 대여하는 독특한 장학제도 / 251
9. 독일대학에는 없는 것, 31가지! / 253
10. 유럽의 가정교육과 조기조업 / 256
11. 교육혁명으로 부자가 된 아일랜드 / 259



# 제 1 장

## 미래를 바꾸는 교육의 힘



教育革命

1.1. ‘우리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1.2. 굼벵이는 구르는 것이 천직  
학자 와 명장  
아름다운 천직  
학문이란? 학자란?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 1.1.

### ‘우리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공교육 실패와 사교육에 지친 가족들이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명들이 해외로 이민들을 떠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능력 있는 각 분야의 인재들과 훌륭한 과학기술자들이 고국을 기피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부득이 이민을 떠나고 있다. 엄청난 국력손실이 되고 있는 현실을 누가 당장 막을 수 있겠는가?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 교육혁명을 당장 실행하지 않는다면 선진국 진입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세대의 실책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수모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 텅 빈 나라, 능력 없는 사람들만 어쩔 수 없이 고국에 남게 되는 기막힌 현실을 막고,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1960/70년대에 우리들이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150명의 석학들이 국내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고 박(朴) 대통령께서 친필로 이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 고국에 돌아와서 함께 일해 줄 것을 신신당부 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당시 국내 대학교수 봉급의 29배를 주시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걸맞은 배려를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독일교수연봉이 한국교수연봉에 29배나 되었다.

국가교육에 대한 신뢰는 미래의 도덕적인 자산이다. 교육기강의 부재로 인해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 도덕적인 자산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교육혁명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천직이 목살되고, 인성교육이 잘못되어 스스로 자녀들의 앞날을 망치는 무거운 중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교육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애국심에 불타는 수천 명의 석학들도 귀국하여, 함께 지식기반산업사회의 주역들이 되어 죽어가는 공교육과 산업경제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인존권(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이 생동하는 훌륭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수립을 통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선진 국민들로 성숙시킬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교육혁명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 1.2.

### 굶벥이는 구르는 것이 천직



#### 학자 와 명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직업만큼 중요한 사회적 요소가 없다. 어찌면 훌륭한 직업인이 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압축해서 말 할 수 있지 않는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국민 교육의 목표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는 과정과 실기분야에 거장이 되는 ‘명장’이 되는 과정이라는 두개의 큰 축이 있다. 어느 한쪽도 더 중요하다거나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어느 한쪽이라도 부실해지면 국가경제가 부실해 지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소질과 재능의 방향에 따라,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평생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어느 방향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예로부터 굶벥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였듯이 사람은 누구

나 타고나면서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달리하여 태어난다. 공부를 하는 것이 행복하고, 논리 정연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은 학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복잡한 이론보다 손재주가 뛰어나 실기에 강한 사람이나, 예능, 체육 등에 남다른 소질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은 명장이 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지난날에는 선비문화를 바탕으로 문인들이 더 대우를 받았었다. 그러나 21세기인 오늘날에 와서는 실제로 활용하는 실기에 능한 사람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낸다. 현재는 명장의 손끝에서 최첨단 고부가 가치의 명품들이 고유 브랜드를 달고 생산되어 세계의 소비 문화와 상권을 제패하는 세상이다.

선진국에서는 어느 길을 선택하던 간에 정년이 될 때 까지 총 수입은 대등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보다는 장인정신을 가지고 기능을 익혀서 사회적 수요가 많은 장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국민의 주를 이루고 있다. 선진국은 장인의 나라이며 이들의 대부분이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튼튼한 산업 강국이 되었다.

## 아름다운 천직

‘천직’이란? 하늘에서 주신 소질을 살려 평생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남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을 하는 직업을

의미 한다.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면서 성취감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해 나간다.

학문을 하기 위하여 엄청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길은 사고력의 천재성이 많이 요구된다. 그러나 명장의 길을 가는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달인의 경지까지 요구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여기서 명장의 길로 가는 비중을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분류하면 전 국민의 90%가 된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명장의 길로 가는 장인 정신의 힘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진실이 내포되어 있다.

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자녀들의 놀이를 통해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어서 천직의 길을 열어주어 행복한 장래가 보장되도록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것과 봄별 같이 따사로운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길이다.

## **학문이란? 학자란?**

지식을 팔아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각박한 현실이고 보니 진정한 학문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개념들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학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가?” 하고 반문해본다. “학문이란 학력이란 힘을 가지고 높고 높은 힘하고도 험한 석학이라는 고지를 점령하러 올라가는 고행 중에 고행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끝이 없고 완성도 없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학문이고, 그 노력을 쏟아 붓는 사람이 학자이기 때문이다.

학자의 진정한 실력이란? 본인의 ‘창조력(創造力, 어떤 목적으로 문화적·물질적 가치를 이룩함)’과 ‘창의력(創意力, 새로운 생각(착상)이나 방안을 만들어 내는 힘)’을 의미한다.

진정한 학자란 학문적 깊은 지식은 기본으로 진실 된 지혜와 지성이 성숙되어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인격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학문을 천직으로 소명 받은 사람처럼 번뇌되고 고달픈 인생행로도 없다.

## 제 2 장

## 교육을 올바르게 하려면?



## 2.1. 교육을 올바르게 하려면?

사람을 만들까,

돈 버는 기계를 만들까?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님

훌륭한 엄마가

훌륭한 자녀를 만든다

대학교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教育革命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 2.1.

### 교육을 올바르게 하려면?



#### 사람을 만들까? 돈 버는 기계를 만들까?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혜를 키워가면서, 여러 형태의 공동생활들 속에서 자신에게 내재된 잠재적인 소질을 발견하고, 지식 외에도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체계에 속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과목을 골고루 배움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인간적인 훈련(인격도야)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인간 사랑을 배우고, 사람의 성품을 다듬어 훌륭한 인격소유를 통한 인생철학을 형성하는 것이다.

“학이불사칙강(學而不思則罔) 사이불학칙태(思而不學則殆)”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것은 공허하고, 배우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자]

Lernen ohne zu denken, ist eitel.

Denken, ohne zu lernen, ist gefährlich. [Konfuzius]

학교에서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익히게 하는 것은 자라서 돈을 버는 기계로 양성함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님**

하늘이 사람 개개인에게 소명으로 준 재능과 소질을 살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천직의 도를 깨닫고, 남을 위하여 생업을 행복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미인 무한한 인덕(仁德)을 쌓아가는 길이 교육이며, 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바로 우리들이 존경하는 진정한 교육자들이다.

선생님들은 생활면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학생들이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분야를 하면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 **훌륭한 엄마가 훌륭한 자녀를 만든다**

요즘 일부 부유층 엄마들은 극성들이다. 자녀들을 미국화 하느라고 원정 출산까지 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조국사랑까지 외면해가면서 국부를 유출시키므로 우리나라의 국력에도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국적 없는 이기주의적인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엄마들의 소임은 아닌 것이다.

엄마들의 진정한 ‘소임’은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자녀들의 소질과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자녀들이 평생 동안 한없이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다.

천직이야말로 귀천 없는 자아실현이요, 인생 사랑의 결작임을 엄마들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

## **대학교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학자로서 학문의 최고봉에 있는 교수는 항상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가장 앞서 가는 창의력과 창조능력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터득한 최신 학술적인 성과를 후진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교수는 국가 최고의 지성인으로 남을 배려하는 선한 마음이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하고, 지식과 지혜를 갖춘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소속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

## 정부와 교육정책자의 책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 백년대계를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즉 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유아에서 박사까지 등록금도 과외비도 없는 교육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직업에 귀천 없이 평생 수입이 대등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을 위한 교육기강을 바로 잡아, 명장들과 학자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우대함으로 자자손손 대를 이어 육성하기 위한 국가장래의 기반조성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미래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있다.

## 제 3 장

# 한국 교육의 허와 실

- 3.1. 선다형 시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3.2. 창의력이 거부될  
만들어 주는 세상인데
- 3.3. 생계비를 줄여 사설학원에  
갓다 줘야 하는 나라?
- 3.4. 대안학교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나라!



教育革命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 3.1.

## 선다형 시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모든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객관식 선다형시험제도가 사이비(似而非)교육의 주범이라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이다.

1960년도 주관식 시험을 치고 나면, 부모님께서 ‘시험 잘 보았느냐?’ 하고 물으신다. ‘예! 잘 썼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같은 물음에, ‘예! 잘 찍었습니다!’ 라고 마치 행운의 번호를 찍는 로또를 한 것처럼 대답한다. 오늘날 잔인하게 찍고 찍히는 위험한 세상이 된 근원이 선다형 시험제도 아닌가?

선다형 시험제도는 인성교육보다 권모술수를 가르치고 알팍한 암기력을 지혜로 착각하게 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예를 들어, 사지선다형의 경우 4개의 예문 중에 1개의 정답과 3개의 정답 비슷한 오답들이 있다. 즉, 여기에는 25%의 진실과 75%의 거짓사항들을 강제적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주입시키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다.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서 정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과 비슷하지만 정답이 아닌 즉, 말 그대로 사이비(似而非: 비슷하지만 정답이 아닌) 오답들을 동시에 강제적으로 주입받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폐단은 무의식속에서 올바르게 착한 천성을 해치는 유해한 학습요소를 더 많이 습득하게 되므로 인성을 말살하는 문제가 심각한 폐지되어야 하는 시험방식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변칙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는 말은 듣는다. 그래서 어떤 법이나 규정을 만들더라도, 원래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준수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법과 규정을 피해가는 편법을 찾는 탁월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올바르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 원인은, 어떠한 원칙을 세우더라도 원칙과 비슷하지만 원칙을 피해가는 변칙을 개발하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선다형 시험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

때로는 출제가 잘못되어 제시된 답들 중에 정답이 없을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학생들은 오답 중에 하나를 정답

으로 선택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올바른 생각조차 흐리게 또는 혼동되게 하여 오류를 정답으로 인식하는 사례로 인하여 부실교육을 강요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객관식 선다형 시험제도에는 또 다른 중요한 교육상의 폐단이 있다. 시험의 목적이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량을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창조적 사고능력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나열된 예문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하는 기존의 객관식 선다형 시험제도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능력보다는 문제은행식 예문들을 많이 학습한 연습량과 암기력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시험을 출제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문제해결에 대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정답과 비슷한 오답예문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변칙에 관한 사이비(似而非) 창의력과 사고력을 동원해야 하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 사회 등 모두에게 불필요하고도 한없이 해가되는 엄청난 노력을 강요받고 있다.

이렇게 독이 되는 엄청난 노력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선생님의 지도 능력 또한 아주 변칙적으로 개발되어 경력이 쌓일수록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고귀한 인성이 자신도 모르게 점차 변칙적으로

무서운 맹독이 되는 성향으로 변해가게 만들고 있다는 소름끼치는 현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논술형 주관식 시험제도는 동일한 문제를 놓고도 수많은 학생들의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답들을 발견 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선생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독특한 재능과 창의력도 발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루는 동안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논리력은 물론 더 나아가 올바른 인성까지 저절로 훈련되어 아름다운 습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잠재의식 속에 이미 깊이 뿌리박힌 이러한 변칙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모두 선다형 시험제도 속에서 오랫동안 길러져 왔으니 얼마나 끔찍한 시험제도 인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암적인 선다형 시험제도가 객관적이므로 손쉽게 채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교육자들과 교육정책자들은 수 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선호하고 있다.

객관식 선다형 시험방식은 인간의 재능을 개발하는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창의력과 사고력을 말살시키며, 더 나아가 아름다운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 속히 시정해야 한다.

## 3.2.

### 창의력이 거부를 만들어 주는 세상인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전인교육이요,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각자의 재능과 소질, 능력에 따른 교육은 평준화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어린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오면 각자 다른 다양한 유형의 사회 인이 된다. 그 가운데는 연구직이나 학계에서 종사 할 사람이 있고, 또는 좋은 손재주로 기능과 기술을 익혀 산업체에서 종사할 사람이나 예술과 체육계에서 활동할 사람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과 소질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구별 없이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평준화교육은 각자의 소질분야에서 가진 천재적 재능을 바보로 만드는 현명하지 못한 교육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교육기회 평등의 개념과 평준화 교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교육평준화와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회평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교육기회평등의 원칙에 따른 교육은, 먼저 학생들의 재질과 학습 능력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학습의 목표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이끌어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합당한 내용을 지도하게 되므로 학교수업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상화 되는 것은 물론 활기를 띠게 된다.

평준화의 결과로 요즘 중/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소수의 재능 있는 학생이 연예계 이야기 이외에 공부이야기나 순수문학과 클래식 음악 등 청소년기에 적합한 주제의 이야기를 꺼내면 평둔화(平鈍化)된 일반적인 다수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재의 학교의 분위기는, 장래에 석학이나 각 분야별 지도자가 될 아이들조차도 이러한 다수의 분위기에 휩싸여 잠재적인 재능이나 창의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마는 딱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잘 자라야 할 떡잎을 관리 하지 못해서 말라 죽게 한 것과 다름없다.

교육해야 할 수준은 개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학력이라는 거룩한 아성의 크기와 깊이의 정도가 각각 결정되어진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도자나 석학이라는 높은 고지의 정상은 누구나 도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지적능력, 지혜, 창의력, 지속적인 의지력 등이 월등히 뛰어나야 하며, 남을 설득하고 인내할 줄 아는 인격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국가지도자나 석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에 합당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우선 국민들의 지적능력과 지혜를 감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쌓기 위해, 다양한 현대 정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을 자신이 스스로 수십 년 지속적으로 수련하고 배양해야만 한다.

또한 국가도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육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어야만 한다. 세계 속의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성년이 된 대학시절부터 전국에서 뛰어난 재목들을 엄격히 선발하여, 올바른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5대 덕목(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시켜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알고 있어야 할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문화, 노동, 교육, 한국사 등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지식과, 지도자로서의 갖추어야할 인성과 교양교육, 윤리 및 예절교육까지 오랜 기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만 치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훌륭한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

부록인 ‘책속의 작은 책’에서 소개 하였듯이, 유학시절 필자도 현재 독일정부의 기민당(CDU)소속인 아테나워 정치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수년간 국가지도자 과정을 교육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없이는 올바른 정치지도자를 육성할 수가 없으며, 국가 간의 외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평준화교육이 출생시킨 평둔화(平鈍化)사회에서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점점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중병에 감염되었고,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에 걸맞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소질과 재능별로 잘 분리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야만 현실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 할 수 있다.

### 3.3.

## 생계비를 줄여 사설학원에 갖다 줘야 하는 나라?



과외문제가 온통 나라를 뒤 흔들고 있다. 가족의 도덕적 해이와 경제적 파국은 물론 과외를 받고 자란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서도 과외 받을 곳을 찾아 나서고, 심지어는 취직을 위한 과외까지 성행하다보니 과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실력 있다는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 과열과외시장에 동참하다 보니, 공교육은 부실해질 대로 부실해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만성적이며 고질화된 사회문제로 변모해 버렸다.

가정경제에서 50%의 생계비를 사교육에 바치고도 자녀들은 부실한 교육을 받아 대학졸업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비참한 현실이 서민들의 가슴을 몇 배 더 애타게 하고 있다. 오히려 시골 학생들처럼 전혀 사교육을 모르는 이들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GNP가 2만 불이나 된다는 통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때문에 1만 불 수준으로 강등 되었다. 사교육비가 없다면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2만 불의 소비문화가 형성되어 수요가 늘어나고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가 국민경제가 활성화 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생활이 여유롭게 되어 레저문화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여유가 생겨서 국민들이 자기계발에 힘쓰므로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 올라가 창의력이 좋아진다.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각 가정의 경제력도 늘고 국가경제지표도 좋아져서 우리가 그리던 희망찬 선진사회가 된다.

은 국민들이 융합하여 교육혁명을 하루 빨리 실행한다면 멀지 않아서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공교육비까지 사라지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

## 3.4.

### 대안학교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나라



‘대안학교에 버려진 학생들은 두 번 죽인다!’ 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사실이다. 대안학교를 나온 다재다능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교육에서, 두 번째는 공인을 받지 못해 진학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국가는 이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천재성을 타고난 특별한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나타내며 일반적인 것에는 관심이 적고, 틀에 박힌 교육제도 속에서는 답답함을 느끼는 법이다. 이렇게 재능이 탁월하여 일찍 소질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일반적인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모여 있는 곳이 대안학교인데 이 대안학교가 공교육 안에 있지 못하고, 소수 뜻있는 훌륭한 분들이 자발적인 주도하다 보니 공교육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유럽선진국의 학교교육 제도를 보면 공교육자체가 모두 대안학교들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교육철학이 아이들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 다양한 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공교육의 학교형태만 보더라도 29개의 다양한 종류의 대안학교들이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대안학교들의 특별한 교육과정들을 공교육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시스템들을 공교육의 모체로 현실화 하여 누구나 자기 적성에 맞고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게 되도록 해야 한다.

# 제 4 장

## 부자들의 교육과 빈자들의 교육

제 4 장



教育革命

4.1. 양극화로 곁도는 학교수업

4.2. 조기교육의 허상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 4.1.

### 양극화로 고통받는 학교수업



2006년 2월 24일 아침 8시 MBC TV ‘아주 특별한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기가 막히는 사실이 보도 되었다.

우리나라 서민들의 자녀 중에서 2,700명이나 초등학교에도 못 다니고 있다는 보도다. 정신지체장애자가 가장인 한 가정은 5남매를 모두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는 국민의 공교육을 책임 져야 하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무학자들이 취직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이들은 단지 생존을 위해 잘못하면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기 쉽다.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되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방면에서 돌 볼 수 있는 사회적제도와 장애인을 정상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기회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혜택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국민의 기본교육인 인성교육과 개인의 소질과 재능에 맞는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교육비가 없는 교육시스템 구축은 물론, 빈자들에게도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지원이 제대로 되어야한다. 그래야 이들의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에만 몰입 할 수가 있을 것 아닌가?

## 4.2

### 조기교육의 허상



요즘 부모들은 교육조차 유행으로 생각한다. “남이 장에 가면 거름지고 따라 간다”는 속담처럼, 이웃집 아이가 무엇을 배우면 자기 아이가 뒤떨어질까봐 덩달아 아이의 적성과 취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기에 학원에 보내거나 개인과외를 시킨다.

이런 현상은 아이의 의사와 소질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러운 성격형성과 올바른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무리한 조기교육을 함으로 아이가 지쳐서 모든 면들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의욕상실증이 생기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성격이 삐뚤어져 잘못된 인격체가 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조기교육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사실은 조기에 무엇이든지 가르치면 아이들은 신체적인

특성에 의해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에 관계없이 빠른 진보를 보이는 경향들이 많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아이의 본래 적성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부모들의 착각으로 아이들이 잘못된 교육방향으로 유도되어 아이 자신이 가장 큰 역기능의 피해자가 되고, 또 부모들은 잘못된 조기교육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한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진정한 소질과 적성이 가려져서 평생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혼란 상태로 살게 된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악기 진열장에 있는 바이올린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달라고 부모를 조를 때 이를 보는 부모가 “이 아이가 바이올린에 소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바이올린 조기교육을 시킨다면, 처음에는 잘 배우다가 원래 소질이 없으면 싫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부모는 생각에 도취되어, 자기 아이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엄청난 압력과 설득으로 계속 무리한 조기교육을 강요한다면, 그 아이는 하고 싶지도 않은 바이올린 강습을 계속 받아야하는 고통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놀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놀게 되면 스스로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시골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 성공한 인물

들이 많은 것은, 어린 시절 자연 속에서 많이 놀다보니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재능을 나타내게 되고 부모는 재능에 따라 교육방향을 잘 잡아 주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강요에 의한 잘못된 조기교육으로 소질을 찾아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아이의 진정한 소질과 재능이 부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전혀 빛을 못 본 채 사장되어 버리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다. 외국어든 예능이든 조기교육은 신중해야 하며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지 파악하여 조기교육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소질과 재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조기교육을 강요하는 것 보다 더 훌륭한 지혜일 것이다.



## 제 5 장

# 대학을 나와도, 갈곳이 없어

5.1. 청년실업 100만 시대

5.2. 대학의 강철 밤통,  
실력인가 로비인가?

5.3. 대학에서조차,  
가짜들이 판치는 나라!

5.4. 국가를 망친 공교육,  
왜 어디서 왔는가?

5.5. 입학시험만 합격하고,  
등록금만 내세요?



教育革命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 5.1.

### 청년실업 100만 시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6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학 졸업자 약 46만 명, 국공립대학 졸업자 약 10만 명으로 총 졸업생 수는 약 56만 명이다. 이들 중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한 사람들은 약 39만 명이라 했다. 이렇게 보면 대졸 취업이 75% 정도로 취업률이 높은 것 같이 보이나, 이중에서 제대로 전공을 살려 전문인으로 진출한 사람들의 통계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대학은 전공에 따라 전문가가 되는 과정인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되기보다는 전공과는 상관없는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전공분야별 졸업생의 공급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나, 전공과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전공공부에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을 일찍부터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투입했다면 훨씬 유용한 투자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수는 유럽 선진국의 연간 대학졸생들의 수와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비교해 보면, 국내 국립대학들의 연간 졸업생들의 수는 약 4배나 되고, 사립대학들 까지 합치면 약 10배나 된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전공을 살려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 대학들의 인재 양성의 실상을 보고 소위 “발전 없는 성장(growth without development)”이라는 표현을 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인생진로를 잘 개척할 수 있게 다양한 평생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이 책 제 7장에서 다양한 국민교육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 5.2.

### 대학의 강철밥통, 실력인가 로비인가?



대학에서 적당히 분배하는 ‘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 아닌 인재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들 중 다수는 국내 학계와 대학들에서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박사학위를 획득한 진정한 인재들을 제치고, 학문의 깊이와 지성을 외면한 채, 대학교 교단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우리나라보다 몇 배의 시간과 청춘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창작논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정말로 존경받을 실력을 갖추고 있는 박사다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훌륭한 한국 인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귀국하면, 한국에는 이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미 국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교수를 비롯해 연구소 까지 대부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출신의 세계적 석학들이 조국을 위해 해외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배운 첨단기술과 깊이 있는 학문을 전수할 일자리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청출어람(靑出於藍: 제자가 스승보다 훌륭함)도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기대할 수 있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세계를 선도 하는 위대한 과학 기술자나 석학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부터 조성해야한다.

## 5.3.

### 대학에서 조차 가짜가 판치는 나라



교육평준화 실행으로 인재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교육이 되고 있다 보니, 능력이 부족한자도 지도자로 변신할 수 있는 적당한 풍토가 거리낌 없이 조성되어 졌다.

몇 년 전 대전에 있는 국립연구소에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공업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필리핀에서 만든 가짜 박사학위 증서를 제출했는데도 국립연구소 연구원으로 고용된 것이다.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 없이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중 정기적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정리를 위해 필리핀 대사관에 그 연구원의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박사라는 것이 발각된 사실이다.

더 기가 막히는 현상은, 같이 일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 사람의 실력을 전혀 의심도 하지 않았을 정도였으니,

학문의 기강이 걱정되지 않겠는가? 평준화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관심 때문일까?

가짜박사를 교수로 채용할 정도로 진짜와 가짜도 걸러내지 못하는 수준이 일부 대학들의 현실이라니 매우 슬프고 한심한 일이 아닌가?

이런 현상은 사이버 지식사회의 마비된 양심, 국정의 학문정책 부재, 대학개혁의 실패 등이 합작 된 참담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 5.4.

### 국가를 망치는 교육, 왜 어디서 왔는가?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산업의 근본이 되었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로 일컫는 현재는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국가 산업의 근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산업의 근본이 되는 장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여 화이트칼라만을 선호 하는 경향이 국가산업의 근본을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다.

그 결과 대학 입시 경쟁의 과열과 함께 과외나 학원등 사교육이 성행하여 사교육비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물의를 빚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력상실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다.

대학이란 본래 각 분야별 지도자를 육성하는 곳인데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나 천부적인 소질은 각각 다르게 받고 태어났다. 즉 장인의 소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학자

가 되는 길보다 명장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회풍조에 따라 무리하게 학문의 길로 가기를 원해서 대학정원이 늘어났다.

현대 산업사회는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원리에 의하면 장인에 대한 수요가 학자의 10배나 더 필요하다.

국가정책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소질과 재능에 따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평생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국민 모두가 현재의 소득수준에서도 실질소득이 높아져서 더욱 잘 살 수 있다.

공교육 실패에 대한 책임은 굳이 묻는다면, 정부가 입시정책을 비롯해서 교육전반에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탓이 크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시대부터 사농공상의 순서대로 직업을 우대하는 국민들의 잠재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별없는 경쟁의식이 과열되었고, 또한 잘못된 대학교육 정책과 장인교육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 5.5.

### 입학시험만 합격하고 등록금만 내세요?



앞에서 언급된 한국 교육의 주요 문제점과 현재 당면한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 2가지의 근본 원인으로 인하여 파생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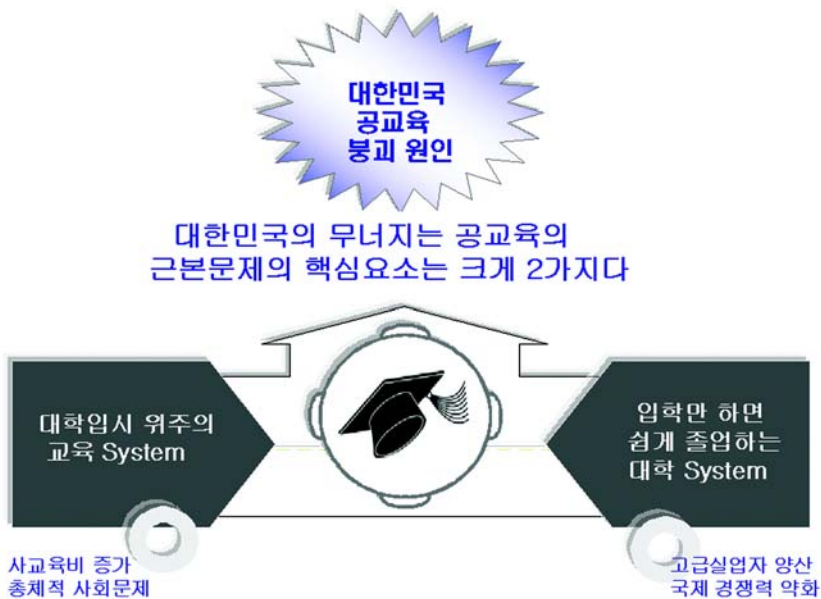
첫째: 현행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제도가 첫 번째 근본원인이다. 학교 교육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격 형성의 인성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 선행교육 및 조기교육, 선다형 시험문제, 교육의 양극화 심화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즉, 대학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에 한번 입학하면 쉽게 졸업할 수 있는 현행 대학졸업 제도가 두 번째 근본원인이다.

평준화 교육의 문제, 대학생의 취업난 문제, 논문표절시비, 가짜 박사 및 교수 임용비리의 결과인 어용교수 같은 문제들과 대학졸업 자격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점 들이다.

우리 사회가 대학입학시험에만 합격하고 등록금만 잘 내면 대학 졸업이 쉽게 되는 현행 입시제도 및 졸업제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파생되었음을 깊이 인식 해야만 한다.

복잡한 것만 같은 한국교육의 많은 문제점들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되면,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교육혁명을 통하여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 제 6 장

# 아름다운 교육혁명을 위하여

- 6.1. 대학의 입학과 졸업,  
무엇을 어떻게 바꿀까?
- 6.2.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잘 살 길이 있는 나라
- 6.3. 대학, 제대로 교육시켜야  
살아 남는다!
- 6.4. 대학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 6.5. 5년이면 교육을  
확 바꿀 수 있다!



教育革命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교육



## 6.1.

### 대학의 입학과 졸업, 무엇을 어떻게 바꿀까?



독자 여러분께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그 많은 교육문제들을 해결하는 교육혁명이 어떻게 실행 가능할까? 하고 매우 궁금해 하실 것이다.

모든 문제는 항상 정답이 있다.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단지 필요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지혜를 모으면 이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적인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실패와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입시제도와 졸업제도에 있다.

우리의 현행 교육제도는 진정한 학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학입시 준비단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게 만들고 있다. 정작 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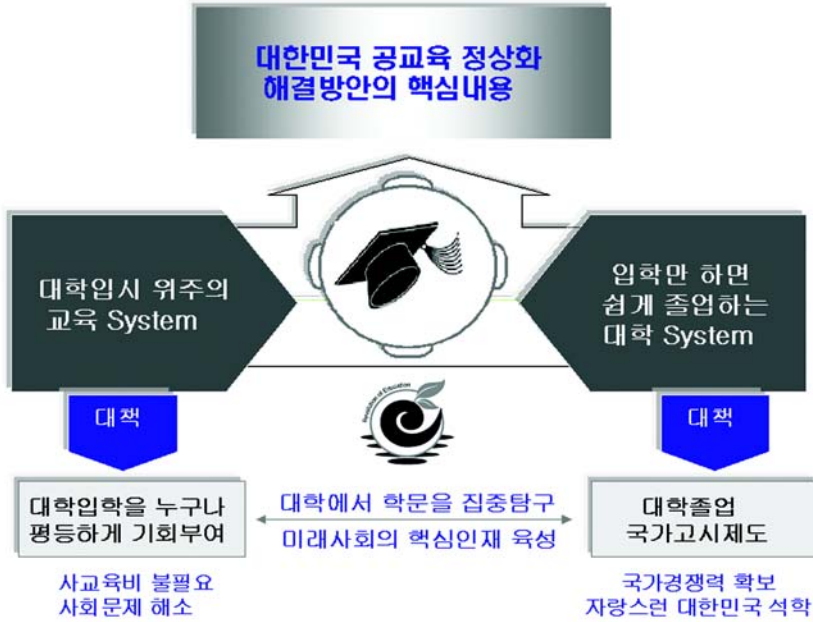
한 학문을 해야 할 대학에서는 고 3 때보다도 오히려 더 공부를 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 하게 된 것은, 입학하기만 하면 대부분 쉽게 졸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입시에만 온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교육혁명의 시발점으로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현행의 입시제도와 졸업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면 된다.

‘대학의 입학문은 활짝 열고, 졸업은 능력에 따르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든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풀리게 하는 지혜이다.

대학입학은 학문을 터득하고자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게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 하지만 대학졸업은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능력이 되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졸업고시를 합격해야만 졸업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졸업국가고시제도’를 시행하는 정책이다.

대학졸업국가고시제도에는 ‘국가학사고시’와 ‘국가석사고시’로 나눈다. ‘국가학사고시’는 지금의 대학과정 졸업생을 배출하는 과정이고 ‘국가석사고시’는 지금의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치르는 고시이다.



‘국가석사고시’에 합격한자에 한해서 ‘국가박사후보등록고시’에 응할 수 있다. ‘국가박사후보등록고시’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국가박사학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은 받는 박사 후보생은 수년간 연구한 성과물인 ‘창작논문’을 국가박사위원회에 제출하여 박사논문으로 인정받은 다음 ‘국가박사면접고시’에 합격해야 ‘국가박사학위’를 국가로부터 수여 받을 수 있다.

이는 학문이라는 높은 산에 도전할 기회는 누구나 갖지만 정상에 오르려면 합당한 능력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해야할 부분은 입시단계의 학생의 자질보다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졸업생의 자질과 수준 관리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대학교육의 목적이 각 전공분야별로 훌륭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의 문을 열고, 대학졸업국가고시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는?

첫째: 미래를 책임져야 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현행의 대학입시제도하에서는 대학입학을 위해 과중한 과외나 입시공부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성과 체력연마 및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는 데 너무나 소홀했다.

그러므로 대학입학에 대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면 입학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지므로 공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체력연마 및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된 능력개발에 더욱 중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등학교까지의 학업은 올바른 사회인이 되기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고, 앞으로 진정한 학문을 하기 위한 기본을 준비하는 공부다. 진정한 학문은 전공공부를 하는 대학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입학은 학문을 하기위한 하나의 통과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대학입학을 목표로 한 학습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공부하는데 있어서 같은 노력과 고생을 투자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 들인 노력과 고생은 학과진로가 결정되기 전이므로 장래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대학에서 진로가 결정된 이후에 투자된 노력과 고생은 설사 '대학졸업국가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투자한 노력이 향후 자기의 전문분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 2장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그 이유는 대학에 진학이 자유로우므로,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과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선행학습 및 조기교육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의 대학 입시공부에는 과외가 도움이 될지 모르나, 각 전공별 학문에 대한 '대학졸업국가고시'는 과외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졸업국가고시의 난이도는 평균 5시간동안 '오픈북(open book)' 형태의 주관식 시험문제들로 출제될 것이며 대학교수들도 충분히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로 과외선생의 도움으로 풀기에는 엄두도 못내는 전공수준이 될 것이다.

이어서 필기고시 합격자에 한해서 구두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므로 대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학업에만 전념해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졸업생의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훌륭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되고,

대학졸업생 실업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어려운 ‘대학졸업국가고시’를 통과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면학분 위기가 살아나 대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므로, 대학교수들의 연구 활동이나 자질도 급속도로 향상될 수밖에 없으므로 가짜 박사나 논문표절 및 어용교수 같은 단어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갑자기 대학의 문을 개방하므로 인해 명문 대학에 몰리는 현상이 예상되므로 불가피하게 대학에서 입학생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어느 정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며, 2부제 수업을 실시하더라도 대학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입학시키도록 한다.

대학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미달의 학생들은 입학만 했지 졸업을 할 수가 없고, 중간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욕을 부린 학생들이 점차 사라지고 자기의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을 다녔든 간에 ‘대학졸업국가고시’를 통과 했는가 하는 것으로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다. 학벌이란 말도 서서히 자연사를 하게 된다.

초기 제도 시행에 따르는 입학면접 시에는 고등학교까지의 학습량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성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지원하는 학생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답을 전개할 수 있는 논술식 면접을 하게 한다.

즉, 입학생의 인성이 훌륭하고 자신의 소질과 재능은 물론 소명을 아는 사람인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적과 지속적인 의지력과 창의력으로 어려운 전공공부를 해 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면접을 한다.

대학입학준비는 기본학교(초등학교)학생시절부터 품행이 성실해야 하고, 많은 독서와 견학을 통해서 박식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베이게 하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활동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교육을 실시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재능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소명을 바로 인식하게 하는 총체적인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세계적인 위인들에 대한 내용과 특히 한국의 역사를 중시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훌륭한 한국고유문화의 많은 장점들을 세계에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해야 하며, 효도하는 것을 몸에 배게 하므로 나아가 진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스스로 터득하게 함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게 육성하는 것을 대학입학 준비과정으로 한다.

## 6.2.

### 대학졸업장이 없어도 잘 살 길이 있는 나라



교육혁명 시행과정에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많은 사회적 교육적 문제들이 제시된 대안인 ‘대학입학 개방 및 대학졸업국가고시’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풀려 갈 것인가?

물론 교육혁명이 시작되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혁명을 전담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전문조직이 구성되게 되어 제 7장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국민교육제도가 수립되고, 제 9장에서 제시하는 교육혁명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게 된다.

이렇게 교육혁명이 실천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미리 예측해 보기로 하자.

## 새로운 제도에 파생되는 문제점해결 방안



### 문제 1 : 국가학사고사 또는 국가석사고사에서 탈락되는 학생들의 진로 문제는?

정규대학을 가는 사람은 대학졸업국가고시 합격 후 졸업을 하면, 사회의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인으로, 또는 국가기관의 공복이 되는 지도급 인사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문적으로는 대학의 정교수가 되는 학문을 위한 고행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대학졸업국가고시 탈락으로 대학졸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장래 역시 훌륭하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정규대학에서 전 과정을 통과하기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자는 산업대학에 항시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대학 졸업자 중에 아주 특출한 자는 정규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도 포기하는 산업대학 및 정규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사회가 필요한 실기분야의 최고봉인 명장(名匠)이 되는 장인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 조정 제도들이 제 7장의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다.

## **문제 2 : 100만이나 되는 현재 졸업생 청년실업자 문제는?**

제 7장에 기술된 교육혁명에 따르는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 따라 기존의 실업자들도 장인교육의 혜택을 받고 각자의 재능에 따른 진로선택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적체된 기존 졸업생들의 취업문제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년퇴직을 하신분이나, 나이가 많은 실업자들에게도 21세기에 생겨나는 새로운 전문직분야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국민대학’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 **문제 3 : 현재 대학 재학생들의 문제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역시 ‘대학졸업국가고시’를 치르고 졸업을 하면 된다. 현실을 참작하여 초기에 실시되는 국가고시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정착될 때까지 수준을 계속 높여가게 되고,

졸업하는 숫자 역시 점차 줄어가게 된다.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재학생들은 과도기적인 행운을 얻게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선배들보다는 몇 배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제 4 : 지금의 인문계 학생 중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산업체로 바로 갈려면?**

유럽에는 인문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천직을 찾아서 장인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조명, 무대장치, 연극 및 영화감독 등 예술분야의 명장, 파이프 오르간 제작 명장, 바이어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 현악기 제작 명장, 금관악기 제작 명장, 화훼장식 명장,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등 직업체육선수 등 다양하게 특히 손재주 또는 특기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대학을 포기하고 명장의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종합학교로의 진로전환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 잘 정립되어 있다.

## 문제 5 : 현 상황에서 대학입학 전 현장실습제도 실시는 어떻게 ?

새로운 교육제도에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1년간 현장실습을 수료해야 대학에 입학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자신이 대학을 나와서 근무할 분야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것으로 자신이 택한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먼저 체험해보는 제도여서 현재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의 적성에 안맞아, 내가 학과를 잘 못 선택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이다.

이공계열에 입학하는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서 어차피 해야 할 학과에 필요한 실습을 미리 기업에서 했으므로, 대학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같은 실습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공공부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 인문계 학생들도 사회적 경험을 미리 함으로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에 큰 도움이 되게 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한 예로 법관이 되는 법과를 입학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법 계통에 관련된 곳,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인턴사원처럼 그리 많지는 않지만 국가가 정하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체험하는 제도이다.

젊었을 적의 체험한 현장실습이 판사가 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서 더욱 심사숙고하게 되어 인간적이면서도 공정한 공판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 따른 현장실습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각 직종별 산업체와 공공기관 내에 있는 직업훈련시설이용과 더불어 생산현장에서 대학지망생들이 현장실습을 체험해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 **문제 6 : 교육혁명의 비용은?**

약 20조원이 넘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교육혁명을 실행하는 데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추가로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

새로운 공교육 제도에서는 실습생들이 학교를 떠나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종합학교의 교실수요가 반으로 줄어들고 실습실, 실습기계 및 설비, 그리고 실습재료비 등에 필요했던 오히려 예산이 절약되게 된다. 이렇게 절약되는 비용으로 개인 및 학원 강사들의 실적을 막기 위하여 공교육에 필요한 교사수를 증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교육혁명을 실행하겠다는 국민의 염원과 차기 대통령의 예산조정 및 절약의지가 융합되면, 현 국가제정으로 증세 없이 충분하다고 필자는 계산하고 있다.

## 문제 7 : 현재의 학원 및 사교육 기관문제는?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 및 사교육기관들은 국가에서 지원하여 입시학원이 아닌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예술과 체능 특기자 또는 한류를 활성화 하기위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원, 그리고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의 요리, 의상, 음악, 예술, 무술 등의 수준을 높이고 세계화 브랜드화에 교육을 담당하는 문화학원들로,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새로운 직업들인 지식기반사업을 주도하는 학원으로 거듭 태어나게 한다.

정부가 주관해야 할 국책 문화 사업들과 유비쿼터스 시대를 여는 지식기반조성 사업들을 사설학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학원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한다.

## 문제 8 : 현직 입시학원 강사들의 진로문제는?

지금까지는 훌륭한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 학원으로 갔으나, 교육혁명이 실시되면 교사 자격증이 있는 학원 강사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학교로 되돌아가게 되는 정책이 실시된다.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실시되면 지금

보다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세심하게 되므로, 선진국처럼 한 반에 교사를 2명씩 배치되거나, 또는 한 반을 두 반으로 나뉘어져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교사의 수가 두 배 이상 필요하게 되므로, 현직을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갔던 교사들과 최근에 조기에 정년퇴직을 하신 일부 원로교사들 까지 학교로 되돌아오게 된다.

### **문제 9 : 현재의 학교교육 교과과정의 개선과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 문제는?**

교육혁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전까지 약 2년~3년 정도 과도기정책이 준비되어 있다. 이때 혁명에 대비하여 교사들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사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교육혁명 초기 몇 년간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로마가 하루에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처럼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온 국민들이 융합하여 인내를 가지고 현직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차근차근 실시해 나가면 우리의 교육환경이 오늘 보다 훨씬 나은 내일이 될 것이다.

## 문제 10 : 국가고시 출제위원의 공정성 문제는?

새 교육시스템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박사위원회’에서 대부분 ‘오픈 북(open book)’형태로 주관식으로 출제될 것이며 시험지 채점은 여러 위원들이 문제별로 나누어서 채점 하는 공정성이 입증되는 과학적인 채점시스템이 도입된다.

우선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코드를 사용하게 하여 누구의 답인지 인지 모르게 보안조치 하고, 한 시험지를 한 사람이 다 채점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문제씩만 채점하는 방식이다.

고시에 다섯 문제가 출제 되었다면, 5명으로 구성된 채점위원들이 한 문제씩만 채점을 하고 채점을 한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넘겨 주기 전에 반듯이 직접 사인을 한다. 도장을 찍어서 사인을 대신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고시의 공정성은 대한민국의 명예요, 자존심이기 때문에, 시대발전에 대비하여 공정성을 위한 관련법체계와 보안조치도 더욱 발전하게 된다.

## 문제 11 : 현재 대학의 예체능계도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나?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 의하면 예체능계는 학문을 하는 부문만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예체능계 즉, 음악이론,

작곡이론, 음악사, 미술사, 체육사, 체육이론, 체육지도론 등 창작과 이론분야에는 대학졸업을 위해 ‘대학졸업국가고시’에서 이론만 치르게 되지만, 작곡가, 지휘자, 연주자, 무용수, 체육인, 화가 등 실기분야에 종사할 예체능계는 실기능력을 공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졸업국가고시’에서 이론과 실기모두 치르게 된다.

## 문제 12 : 교육 혁명의 시작은 어떻게?

교육혁명은 차기정부에서 실시하되 약 2년~3년간 과도기 기간을 거쳐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계몽과 홍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마음이 융합된다면 대학입시 개방제도는 곧바로 적용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서는 고 3을 졸업해도 곧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1년간 현장실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첫해는 재수생 이상의 적체된 입시인원들에게만 실시된다.

교육혁명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인존과 학문을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세계적으로 석학의 반열에 있는 존경 받는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에 선출되어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지혜롭게 국민들을 융합해 가면서 실시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 **문제 13 : 현재의 국립대학 통합은 언제, 어떻게 하나?**

제 9장에서 새로운 국민교육제도를 위한 정책 중에 국립대학통합정책은 차기정부에서 실시하되 약 2년~3년간 과도기 기간을 거쳐 국민들이 융합되도록 계몽과 홍보가 된 다음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대학건물 및 기숙사 신축 등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 **문제 14 : 현재의 고 3 수험생들은?**

차기정부의 임기가 2008년 2월부터 시작되므로 새 대통령의 임기시작과 같이 교육혁명을 시작하면 오는 2009년 입학생부터 필기시험이 없이 면접만으로 대학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상 현 정부가 교육혁명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2008년 입학생부터 대입시험 없이 입학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현장실습제도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곧바로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문제 15 : 현재의 재수생 및 삼수생들의 처리 문제는?**

새로운 국민교육제도 체제에서는 학년이 없고, 대학졸업이 학점제가 아니라 국가고시제 이므로 입학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대학 입학 조건으로 의무적인 현장실습을 1년 해야 하므로 현재의 고3수험생들에게 졸업 후 1년 뒤에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대학은 1년 동안 고등학교를 곧바로 졸업한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시행 첫해에 한에서만 기존의 재수생 삼수생뿐만 아니라 다수 생들에게 현장실습은 입학 후 방학 때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허락 된다. 이러한 정책은 그 동안의 누적된 다수 생들과 일반인에 이르는 대입정체를 해소하여 주므로 국민들의 걱정을 모두 들어 주게 된다.

시행 첫해에는 누구든지 학문연구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 할 수 있어서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뜻을 품은 사람은 교육혁명 시작과 함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행운아가 된다.

## **문제 16 :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학부모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은 대학입시다. 하지만 새로운 국민교육제도는 대학입학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현재의 과외수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사교육이 사라지게 되므로 공교육이 급진적으로 정상화 된다.

교육혁명이 실시되면, 공교육도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에

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창의력이 개발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과정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 교사 및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입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아이의 소질과 재능을 찾는 일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앞서 언급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므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체력연마와 인성교육이 생기를 되찾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자동적으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 **문제 17 : 사교육비의 부담 문제는?**

새로운 국민교육제도 시행되면 그 동안 입시학원에 투자했던 사교육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물론 각 개인별 취미나 소질 개발 등 예체능 분야 및 조기교육 때문에 혁명초기에도 사교육비가 다소 존재할 수 있으나 공교육이 활성화로 학교교육 내에서도 소질 및 재능개발에 적합한 소질 및 재능 발굴 교육을 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사라지게 된다.

### **문제 18 : 대안학교 문제는?**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 따르면 기존의 대안학교들은 국가지원을

받아 각 기능별로 종합학교 안에서 참신한 산학교육으로 당당하게 동지를 틀게 되고,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특별한 소질과 재능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배양하는 인재육성제도 안에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지금의 대안학교 그 실체가 정상적인 공교육기관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 **문제 19 : 경쟁에서 퇴출되는 대학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졸업국가고시에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부실한 대학들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게 되므로 자동으로 퇴출되게 된다.

막대한 투자가 된 이들 대학은 먼저 학문을 하는 대학에서 산업 역군을 육성하는 산업대학으로 조정된다.

산업대학에서도 졸업국가고시를 합격하지 못하여 부실해지면 종합학교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평생교육국민대학으로 변모하게 하여 시대적으로 급변하는 직업변화에 빠르게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변모되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 **문제 20 : 현행입시 제도와 논술문제는 없어지는가?**

기존 입시제도 그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학입학을 위한 면접시험은 실시되므로 창의력을 위하고 인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논술교

육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입시학원에서 죽집게 식 단순교육이 아닌, 유치원에서 그림책을 보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서 출발하여, 기본학교(초등학교) 때부터 독서교육을 활성화 하여 언어영역은 물론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하여 위인전들을 많이 읽게 하며, 문학, 역사, 지리, 사회, 인문,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적어도 1주일에 4-5 권씩 읽게 하여, 대학 입시 때쯤에는 웬만한 책들은 다 읽을 수 있게 권장된다. 독서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적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글을 쓰는 많은 작가들이 솟아내는 창의력으로 인해 한국을 지성인의 나라, 문화의 나라로 거듭 발전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훌륭한 책들이 국민들에게 세계를 견인하는 지혜를 제공 할뿐만이 아니라, 침체된 출판업계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희망과 발판을 만들어 주게 되어, 한국경제에 한층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 **문제 21 : 장애인 교육문제는?**

학문은 두뇌로 하는 것이므로 정신장애가 아닌 지체장애는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 활동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에게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교육과 대학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여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소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한다.

유럽 선진국 교육기관들처럼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준다. 다만 정신적인 장애는 국가의 의무로 평생 의식주뿐만 아니라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특별한 혜택과 삶에 필요한 재활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 6.3.

### 대학, 제대로 교육시켜야 살아남는다!



교육혁명과 새로운 국민교육제도가 시행되면 대학교육 분야에 엄청난 발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제 2장에서 언급했던 대학관련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수준과 면학분위기도 되살아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변모 하게 된다.

#### **변화 1 : 대학의 수준이 높아진다.**

대학졸업국가고시제도가 실시되면, 고시에 합격을 못시키는 대학들은 자연히 도태 될 수밖에 없다.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빠르게 높여야 함으로 훌륭한 교수들을 모시는 것은 물론, 교육시설과 실험실습 및 연구 장비 및 설비가 최첨단으로 과학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전 세계에서 귀국한 최고의 인재

들이 대학으로 모이게 되어 연구 및 학문의 수준이 세계 최상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 **변화 2 : 대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 된다**

대학졸업 국가고시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난이도를 높이면, 대학생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자고는 대학졸업국가고시에 합격하기 힘들게 되므로, 국가고시가 요구하는 전공학과와 관련된 그 많은 서적들을 모두 다 읽어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에 다니면서 학업 이외에 한눈파는 대학생이 없어져 자연스럽게 학풍이 중시되는 면학분위기가 조성된다.

## **변화 3 : 대학교수의 위상이 높아진다.**

제 9장에서 언급될 교육혁명에 따른 정책 가운데 ‘국가박사제도’ 실시와 함께 ‘논문표절’ 또는 ‘어용교수’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대학에 실력 없는 교수들로 인하여 대학졸업국가고시에 규정된 인원의 합격자를 배출시키지 못하게 되면, 대학 자체가 퇴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자기네 대학이 퇴출 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교수로 초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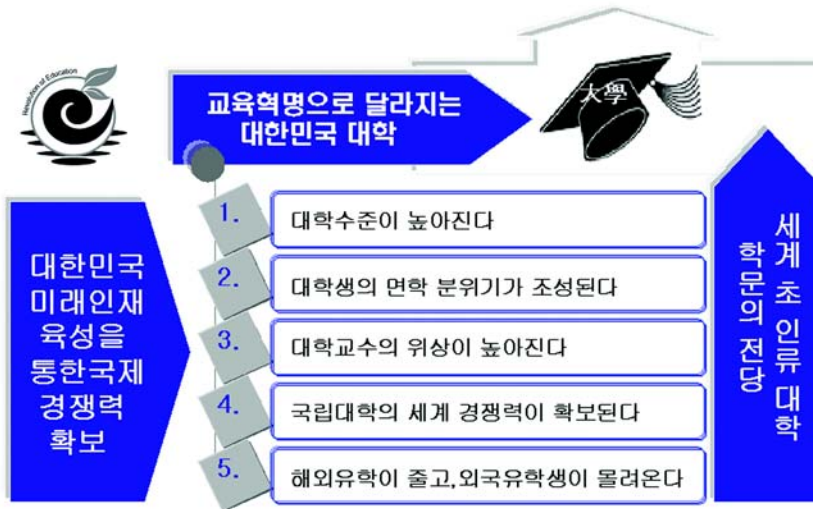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수준과 위상이 선진국의 명문대학 교수들처럼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된다.

#### **변화 4 : 국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

제 9장에서 언급될 교육혁명에 따른 정책 가운데 국립대학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공분야별 대학으로 재편되게 되면, 한곳에서 같은 분야의 연구원들이 협력할 수 있어 비중 있는 테마에 몰입할 수 있는 체계화된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

그동안 분산되어 연구를 하다 보니, 예산이 분산되어 비용손실이 많아 소형 단기 국책프로젝트만이 가능했고 효율성이 적었으며, 특히 중/장기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국립대학을 하나의 편제로 통합하여 학과별로 한곳에 집결되면 최고의 연구 인력과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도시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학이 융합 되어 100년 이상 진행되는 초대형 장기 국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 변화 5 : 해외유학은 줄고, 외국 유학생들이 몰려온다.

앞에서 언급한 국립대학이 하나로 통합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대학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교환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해외로 유학 가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게다가 등록금까지 없어지므로 우수한 외국대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하여 줄을 설 것이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위해서는 한국어를 누구나 배워야 하므로 점차 한글이 세계통용어로 발돋움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교육을 마친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국과 한국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므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다.

## 6.4.

### 대학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교육혁명과 새로운 국민교육제도가 시행되면 앞에서 언급한 교육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해결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표적인 효과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효과 1 :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되살아난다

학생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현재 사교육비가 가계수입 가운데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지출된다고 한다.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불필요 하면 이 돈이 전부 절약되므로 각 가정의 실질소득이 현재보다 약 2배 정도 높아지게 되므로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2배로 높아지고, 구매력이 높아져 국가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된다.

## **효과 2 : 기업의 인력난과 고임금 문제가 해결된다!**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실습생들에게 실습 기간동안 학생신분에 적합한 교통비와 용돈 및 산재보험혜택을 준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대학입학 전에 실시되는 현장 실습생과 산학병행교육제도 실시로 고 임금 및 종업원 수급문제가 경제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 **효과 3 : 산학협력이 활성화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교수로 초빙하고, 학생들의 연구 수준이 높아지고 첨단 연구시설이 갖추어지면, 기업에서 해결 못하는 연구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으로 연구 프로젝트들을 의뢰 하게 된다.

대학 측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함으로 최신 연구 설비를 계속해서 확보하게 되고,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기업체로부터 연구과제 의뢰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산학협력이 꽃을 피우게 된다. 게다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원은 대학졸업 이전에 또는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업에서 모셔가는 계기가 되므로, 지금처럼 대졸 취업문제가 걱정이 없으며, 또는 반대로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수억 원을 주고 간헐적으로 스카우트하는 이색적인 사례도 점차 사라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최고의 인재들을

확보 할 수 있는 Win-Win 시대가 오게 된다.

#### **효과 4 : 저 출산문제가 해결 된다!**

새로운 국민교육제도는 요람에서 박사까지 모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이 없어지므로 국민들이 교육비 문제로 인한 가족계획을 하는 숫자가 줄게 되고, 여성들의 초산 연령이 낮아지면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많이 늘어나게 된다.

국가가 교육에서부터 취업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국민교육제도로 인하여 자식 부양에 걱정이 없어져 출산율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아울러 저 출산으로 우려되는 국가위기의 도래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게 되고, 가까운 장래에 경제부국이 되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더라도 시대를 초월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다.

#### **효과 5 : 가정이 화목해진다**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나 야간자습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패도에 진입하게 되면, 학생들은 부모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또한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사라져서 가계의 실질소득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외식, 여행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삶의 질이 한층 윤택해 지고 저절로 가정이

화목해진다. 나아가 전에 없던 심적 물적 여유가 생기게 되어 어른들을 찾아뵙는 회수도 많아지게 되어 가족의 소중함을 터득하게 되므로 효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올바른 효는 곧 애국이 된다. 아울러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좋아져 국민들 사이에 훈훈한 마음이 생동하게 된다.

## **효과 6 : 사회가 정화 된다**

교육혁명으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배우게 되고, 자연히 그늘진 곳이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 특히 화목한 가정이 많아지면 가정불화로 인한 불량학생이 줄어들게 되고, 학교폭력은 물론 조직폭력도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각자 재능과 소질에 따라 좋아 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직장을 갖게 되면 실업자가 점차 없어져 생계형 범죄도 사라지면서 사회가 스스로 정화된다.

특히 국가가 돌봐 주어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과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능력과 재능에 따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폐자부활의 기회가 생기게 되고 생계비를 지원을 받게 되므로,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모두가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어 함께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가 된다.

## 효과 7 : 농어촌이 첨단 시설과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춘다

새로운 국민교육제도가 시행되면, 농어촌지역의 종합학교들은 농어업 기술에 대한 산학병행교육시스템을 적용하게 되고, 다양화 되고 과학화된 최첨단 기술을 농어업에 접목시켜주는 차세대 영농 교육을 강화하게 되어 농어촌에서도 훌륭한 산학교육정책이 실시 된다.

예를 들면, 우유쌀 생산, 고소득 희귀 화훼재배, 과학적인 포도재 배로 최상품 포도주 생산, 유기농 고수의 작물 및 채소재배, 약초재 배, 인삼재배, 한우특화축산으로 세계최고 육질의 쇠고기 생산, 고수의 수산물 생산 등으로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 시켜주게 되어 농어촌의 미래가 밝아져 농어촌 인구도 점차 증가 된다.

농어업도 인류생존의 3대 필수품인 의. 식. 주에 꼭 필요한 산업 이므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최첨단 산업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농어 업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도 전력투구를 하게 된다.

프랑스는 세계 4번째 가는 공업국인 동시에 세계 2번째 가는 농업국이기도 하다. 이는 공업국인 동시에 농업국이 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농업국 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효과 8 : 기러기 아빠 / 임마가 사라진다

사교육 때문에 또는 인성교육이 부족한 국내 현실 때문에 해외



## 6.5.

### 5년이면 교육을 확 바꿀 수가 있다



국민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되면 짧게는 5년 내에 정착되고, 늦어도 10년 정도 진행되면 완벽한 교육혁명이 완수 될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몰입하여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기간은 많이 단축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복잡한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국민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집행기구를 설치하여 분야별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성을 모으고, 국민들이 있는 힘을 모두 융합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5년 이내에 백년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교육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

## 제 7 장

# 부자나라가 되기 위하여



教育革命

7.1. 국가도약을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

7.2. 새로운 학제, 새로운 학교!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 7.1.

### 국가도약을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의 기본방향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소질과 재능에 따라 단계별 교육제도를 거친 후, 사회인으로 진출하여 각 분야에서 실기의 달인이 되는 ‘국가명장’이 되는 교육과정과, 학문의 석학자리까지 올라가는 ‘국가박사’가 되는 교육과정으로 구축된 두개의 축을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전 국민들을 위한 국민교육제도는 평생교육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으로써, 모든 과정들에 대한 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며, 국민은 정상적인 세금이외에 별도의 교육비부담이 없게 된다.

##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의 핵심내용



## 교육기관의 분류

**요람학교:** 생후 6개월부터 만 2세까지 아이를 둔 직업여성을 위한 탁아소.

**유아학교:** 만 3세부터 만 5세(3년) 아동들의 생활예절교육을 배우는 학교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기본학교:** 만 6세에 입학하는 학교로 중간에 능력에 따라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특별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10년을 다닌다.

인문학교: 기본학교 5년 이수 후, 6학년부터 13학년까지 8년 교육 과정으로 정규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교.

산업학교: 기본학교 5년 이수 후,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7년 교육 과정으로 산업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교.

종합학교: 산업학교와 인문학교 및 특수학교를 가지 않는 대부분의 기본학교 졸업자가 진학하는 학교로서 ‘산학병행교육제도 (Dual-System, 인성 +도제 교육)’의 장인교육을 받는 학교로 졸업과 동시에 ‘국가기능사’가 된다.

예술학교: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분야를 위한 학교로 학년이나 학습과정에 관계없이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체육학교: 체육 분야를 위한 학교로 학년이나 학습과정에 관계없이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특별학교: 어느 학교과정에도 맞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학교 제도를 둔다. 여기에는 상황에 따라 맹아학교, 장애인학교, 근로학교 등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특별한 학교.

기능장학교: 종합학교를 나와 국가기능사가 된 다음 일정한 기간  
경력을 쌓은 후 ‘국가기능장(국기장)’이 되기 위해 가는  
학교.

장인학교: 기능장학교를 나와 국기장이 된 다음 일정한 기간 경력  
을 쌓은 후 ‘국가장인’이 되기 위해 가는 학교.

명장학교: 장인학교를 나와 장인이 된 다음 일정한 기간 경력을  
쌓은 후 ‘국가명장’이 되기 위해 가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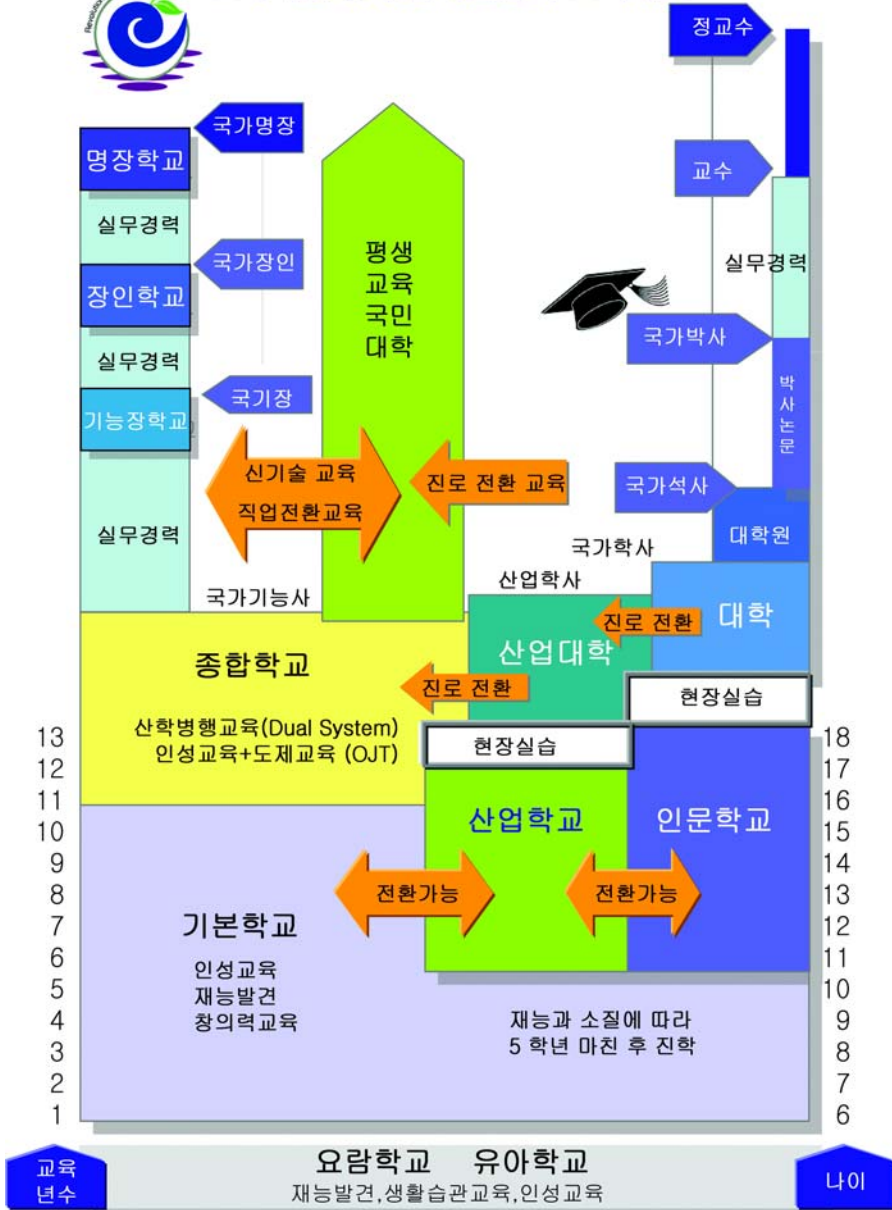
산업대학: 산업대학 입학국가고시 합격자들이 입학하여 산업분야  
에 주역이 되기 위해 8학기 과정을 교육받는 학교.

정규대학: 정규대학 입학국가고시 합격자들이 입학하여 박사과정  
까지 석학이 되기 위한 정규공부를 하고 졸업 후 각 분야  
의 지도자가 되는 학교.

특수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및 해양대학, 예술대학(음악, 미술,  
무용), 신학대학, 불교대학 등 특수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들.



## 교육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교육제도



(도표: 교육기회 평등원칙에 의한 교육제도)

평생교육 국민대학: 일반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으로서, 사회에 진출한 후 자기 직업분야의 새로운 기술정보습득을 비롯하여, 직업 전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및 산업대학 재학생의 직업진로전환도 가능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 이다.

## 7.2.

### 새로운 학제, 새로운 학교!



학년계산은 기본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1학년, 인문학교 졸업반인 13학년 까지 총체적으로 호칭한다. 교육제도 도표에서 인문학교와 산업학교 시작을 1학년이라 표기하지 않고 6학년이라 한다.

#### 요람학교

요람학교는 특히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유아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육자격이 있는 전문보육사들이 신생아들이 좋은 습관을 익히도록 친부모처럼 잘 돌봐주는 국가시설이다.

#### 유아학교

유아학교(유치원)는 만 3세인 아이들이 입학하여 이들이 어릴 때

부터 좋은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하는 생활습관을 교육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올바른 예절과 습관, 부모에게 효도하는 예절, 친구사이 예절, 교통법규 지키는 예절, 예의바르게 말하고 답하는 예절,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화 하는 예절, 식사예절, 문을 열고 다닐 때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열고 서 있는 예절, 등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생활습관교육들을 한다.

유아학교는 자유 민주시민으로 육성되는 첫걸음으로서,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남을 배려하는 인성교육과정에서, 지식이 전혀 없이 태어나 나쁜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천진난만한 상태의 아이들이 가진 천부적인 소질과 재능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이 유아학교의 목표이다.

유아학교의 교육과정은 읽기와 쓰기는 절대로 지도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다양한 놀이들과 그림그리기 등을 많이 실시하게 한다. 이는 아이 개개인의 생각과 소질을 잘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유아학교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소질들을 보여도, 부모들은 미술학원에 따로 보내지 않는다. 초기에 무엇을 가르치게 되면 천부적인 재능이 숨어버리기가 일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아학교기간 내내 자연스럽게 천진난만하게 놀게만 해준다.

그림그리기 놀이들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의 놀이들을 체계적으로 예의 바르게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 개개인의

상상력 창의력 소질들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 테마들에 대해 자신의 내면들이 표현되고 스스로 재능을 나타내게 하도록 지도하는 일과,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과학적으로 세밀히 관찰·분석하여 부모들에게 설명해주고, 같이 상의하는 것이 유아학교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이다.

일생동안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은 유아학교(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도 했다.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양보하며 배려하는 행동, 친절함, 공손함, 효심, 충성심 그리고 서로들이 신뢰하고 신의를 지키는 올바른 습관들은 이미 유아학교에서 다 배워 올바른 습관의 기초가 잘 다져진다는 뜻이다. 유아학교에서부터 자유로움 속에서도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정직하게 자라나게 교육함으로 공생공존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한다.

특히 유아시기에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이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어 이를 생활습관화 함으로 지구촌을 보존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환경파수꾼)로 육성되게 한다.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은 유아들이 성년들이 되면,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환경을 사랑하는 선량한 민중들이 되고 훌륭한 국민들로 자연스럽게 성장되는 것이다.

부모들로부터 유아들을 위탁받아 가르치는 유아교사가 되는 자격은 산업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 기본학교

모든 교육들의 기본이 되는 학교이다. 기본학교는 누구나 빈부 차이 없이 평등하게 만 6세가 되면 모든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로,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조기에 찾아 이에 적합한 성공적인 교육진로를 결정해주는 과정이다. 동시에 대부분 학생들이 10년간 기본학교에 다니면서 직업교육의 탄탄한 기초와 인격이 형성되는 교양교육을 받는 중요한 학교다.

기본학교에서 특별한 소질과 재능에 따라서 구분을 시작하며, 대학까지 공부할 학생들은 5학년을 마치고 인문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산업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도 기본학교 5학년을 마치고 산업학교로 진학한다. 여기서 6학년 때부터 인문학교와 산업학교를 분리하여 공부하게 하는 이유는, 아동들은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지만 이때 이미 소질과 재능 등 대부분의 자질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주영을 보면 뚜렷하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반 대항 축구시합에서 혼자 6골을 넣는 소질이 이미 나타나 축구를 시켰다고 한다. 교사들과 부모들은 축구에 대한 천재적인 소질과 열정을 조기에 발견해서 하고 싶은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브라질유학 등 체계적으로 축구교육을 시켜준 것이다.

선인들은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했다. 그 떡잎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초등학교 4-5 학년이면 확연히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6학년 때부터는 소질과 재능에 따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능력개발에 성공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6년 졸업하고 7학년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5~6년이 너무 쉽고 지루하기만 하다고 짜증을 내는 학생들이 생긴다고 한다. 한 반에 2~3명의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5~6학년 수업들을 듣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늦깎이 학생들도 6학년이 되면 잠재되었던 소질과 재능이 표출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국의 교육제도와 혼동을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절충안으로 5학년 마치고 6년 때부터 능력에 따라 진학을 하게한다.

일부분이지만 나중에 능력이 나타나는 아이들이나 인문학교가 적성이 맞지 않는 아이들은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 9장의 '진로조정이 가능한 전학제도'에 상세히 설명 되어있다.

## 인문학교

기본학교 5학년을 이수한 후 우수한 학생들 중에 나중에 학문연구를 위한 정규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는 교육과정이 인문학교이다. 인문학교의 교과과정은 졸업 후 정규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받으며, 특히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방면의 교과과정들을 학습하게 된다. 성적만 있고 석차제도는 없는 교육이 이곳에서 실시된다.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 간의 석차 자체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인문학교에서도 대학가서 전공할 분야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13학년 때 받게 된다. 전공은 자기의 적성에 따라 선택한다.

## 산업학교

기본학교 5학년을 이수한 후 우수한 학생 중에 학문보다는 취업을 선호하여 나중에 산업대학을 졸업하고 각 분야별 산업체에서 엘리트로 종사하고자 선택하는 과정이다.

산업에 필요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산업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과과정들을 학습하게 된다. 이 학교에서는 공업계열, 상업계열, 사회계열, 농업계열, 수산업계열, 광업계열 등 계열별로 나누어 교육을 한다. 각 학과에 따라 공과대학, 상경대학, 사회대학, 교육대학, 농업대학, 수산대학, 광업대학 등에 필요한 준비교육을 한다.

## 종합학교

종합학교는 기본학교 10학년을 졸업한 후 개인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갖춘 학교이다. 여러 개의 직업의 종류가 모여 있는 교육과정이므로 종합학교라고 칭하며, 학생들의 80%가 대부분 종합학교에 진학하여 훌륭한 장인이 되는 교육과정이다.

종합학교의 각 직업별 분야별 교육과정들을 “학과”라 칭한다. 예를 들면, 간호학과, 의료기술학과, 산림학과, 화훼장식학과, 축산학과, 기계학과, 농업학과, 상업학과, 수산학과, 헤어디자인학과, 전자기술학과, 반도체기술학과, 프로그래밍학과, 애니메이션학과, 생명기술학과, 육류가공학과, 영상기술학과, 실내장식학과, 상업미술학과 등 장래에 수행할 천직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므로 천직교육을 받는 종합학교의 다양성은 무한하다. 의과대학은 의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정규대학에 속하지만, 간호학과는 간호인을 육성하는 종합학교이다.

종합학교는 소질에 따라서 장인정신과 일인일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며, 장인이 된 후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야 입학할 수 있는 국가기능장학교, 장인학교, 명장학교를 나와서 명장국가고시를 거쳐 장인의 최고 영예인 ‘국가명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시작하는 학교가 종합학교이다. 뿐만 아니라 종합학교는 국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능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을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종합학교의 교과과정은 ‘학과교육 + 도제교육’으로 구성되는 ‘산학병행교육제도(Dual-System)’로 편성되어있다. 산학병행교육제

도(Dual-System)란 학과교육은 종합학교가 담당하고, 실기는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익히는 제도로서, 교육기간의 1/2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2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도제교육을 받는 제도이다. 산학병행교육제도(Dual-System)에 대하여는 제 9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종합학교의 교육기간은 각 직업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3년에서 6년 까지 직업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학교를 졸업하면 ‘국가기능사(국기사)’로서 취업을 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별 걱정 없는 중산층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 예술학교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분야를 위한 학교로 학년이나 학습과정에 관계없이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한 재능 교육을 받는 학교. 육체적 또는 소질과 재능발달의 한계가 있어 만약에 프로로서 성공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장래를 위해 종합학교에서 제 2의 소질에 따라 산학병행교육을 받게 된다.

## 체육학교

체육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학년이나 학습과정에 관계없이 직업체육인 되는 각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받고, 소질을 키우기 위한 실기교육은 프로팀의 체육클럽에서 받는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프로로서 성공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장래를 위해 종합학교에서 제 2의 소질에 따라 산학병행교육을 받게 된다.

## 특별학교

인생에 낙오자가 없는 온 국민들이 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기회평등원칙에 따라 맹아학교, 장애인학교 등을 위해 특별학교제도를 둔다. 여기서는 누구든 복지국가의 일원으로 훌륭히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직업분류에 따라 전문기능교육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기본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만을 모아서 이들 능력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근로 학교도 특별학교에 속한다.

## 기능장학교

종합학교를 나와 국가기능사가 된 다음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2~3년간 교육을 받고 졸업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국기기능장(국기장)’ 칭호를 받게 된다.

## 장인학교

‘국가장인’이 된 다음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2~3년간 교육을 받고 졸업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국가장인’ 칭호를 받게 된다.

## 명장학교

‘국가장인’이 된 다음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후 ‘국가명장’이 되기 위해 2~3년간 전문교육을 받는 학교. 교육과정은 자신이 명장으로 숙련된 기술 분야이외에도 경영(Management)에 필요한 창업 업무, 경영관리, 세무, 회계, 무역, 교육학, 심리학, 국제예절 등 자기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실무 지도자로서 후배를 육성할 수 있는 모든 교육과정들을 이수한 후 ‘국가명장고시’에 합격되면 국가로부터 ‘국가명장’이라는 칭호를 부여받는다.

## 산업대학

산업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의 해당 학과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마친 학생들은 산업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산업대학은 국가산업역군으로 산업을 이끌 지도자를 배양하여 기업체에서 가장 필요로 한 인재를 교육하는 대학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과정이 여기에 속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대학 학부과정과

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은 취업을 위한 학문과 연구를 위한 학문의 과정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반면, 새로운 교육제도에서 산업대학은 산업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므로 산업체에서 필요한 응용기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이다. 산업대학 졸업자는 현재의 대졸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체에서 전문 엘리트로서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산업대학의 교과과정은 정규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년 구분이 없으며, 교양과정도 없다.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1~4학기까지는 대학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5~6학기에서는 학과별로 현장에서 현장공부를 한다. 7~8학기에는 직업진로에 따른 특별한 전공학과 공부를 보충한다. 산업대학은 학기말에 과목당 3시간의 주관식 국가고시와 20분 동안 구두시험에 응시한다. 규정된 과목에 대하여 전 과목의 국가고시를 통과한 학생은 비로소 졸업논문을 시작할 수 있다. 제출된 졸업논문심사가 끝나는 학기에 졸업을 한다. 학년은 없으므로 능력에 따라 졸업논문을 통과하는 날에 졸업을 하게 되고 국가로부터 '국가산업학사'의 칭호를 받게 된다.

## 대 학

인문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의 전공희망 분야의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마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교과과정은 산업대

학과 마찬가지로 학년 구분이 없으며, 교양과정도 없다. 대학의 학사운영은 세미나, 실험, 실습, 논문 등이 있고, 대학기간 중에 ‘국가학사고시’와 ‘국가석사고시’를 통과하고 졸업논문심사를 거쳐 졸업할 수 있다.

‘국가학사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현재의 대학학부과정과 비슷하며, 전공분야별 규정된 과목(현재의 규정된 학점제와 비슷함)별로 예비시험을 치루며, 과목당 최소 3시간 이상의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규정된 과목의 예비시험을 모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국가학사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국가학사고시는 4시간의 주관식 시험과 20분의 구두시험으로 실시한다.

‘국가석사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국가학사고시와 마찬가지로 전공분야별 규정된 과목당 예비시험을 최소 3시간 이상의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규정된 과목에 대한 예비시험을 모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국가석사고시(현재의 석사 + 박사과정)’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국가석사고시는 5시간의 주관식 시험과 30분의 구두시험으로 실시한다.

각 과목별로 실시하는 국가고시 응시 시기는 국가학사고시는 늦어도 4학기이내 그리고 국가석사고시는 10학기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국가학사고시는 8학기이내 그리고 국가석사고시는 14학기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국가석사고시 합격자는 졸업논문을 시작할 수 있으며, 졸업 논문은 2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과목별로 치루는 국가고시에서 실패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단 한 번의 재시험을 볼 기회만 허락된다. 재시험에서 또 합격하지 못하면 ‘과목낙제’가 된다. 과목낙제가 되면 그 과목이 들어 있는 학과들에는 더 이상 학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즉, ‘과목 퇴학’이 된다. 과목퇴학을 당한 학생들은 두 가지의 선택 길이 있다. 퇴학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다른 학과를 다시 시작 하든가, 아니면 퇴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두 번의 고시 기회를 주었을 때에도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기회평등의 원칙에서 합격한 학생들과 비교 했을 때,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진로를 전환하게 한다. 이러한 엄격한 대학운영제도가 실시하므로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문을 연구하게 하므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켜 분야별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목표이다.

정규대학은 현재의 대학학부과정 및 석. 박사 과정까지 포함된 전 과정들을 공부하도록 한다. 학과 마다 공부할 폭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처럼 대학에서 학년을 나누는 제도는 폐지한다.

졸업생들은 연구원의 자격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엘리트 직장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그들 중에서 졸업성적이 1%이내에 해당되는 훌륭한 졸업생들에 한해서 세계적인 국가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가박사 학위논문을 완성하는데 5~10년 필요한 테마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기타 학과별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특수대학

특수자질의 엘리트가 필요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해양대학, 예술대학(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신앙대학(신학, 불교학, 종교학)등 그 특성상 특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일반 정규대학과 달리 특별규정에 준한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졸업이 된다.

입학자격은 분야별로 산업학교, 인문학교, 예술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대학(산업대학)과 동일한 맥락에서 ‘국가고시’가 요구된다. 이들 특수대학들은 정규대학교의 캠퍼스 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분야의 특성에 대한 학업에 간섭을 받지 않게 위치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둔다.

## 평생교육 국민대학

평생교육국민대학은 말 그대로 평생 동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 사회에 진출한 후 필요한 지식향상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평생교육국민대학의 교과과정은 현재의 각 분야별 전문 학원들과 같이 학과는 물론 수준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모든 산업분야에 대하여 자기의 직업분야에 신기술 및 정보에 대한 보충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 또는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 그리

고 대학생 중에서 중퇴하고 산업체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등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제도는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교육수준향상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원동력이 된다.



## 제 8 장

# 교육혁명의 다섯 가지 원칙들



### 8.1. 교육혁명의 다섯 가지 원칙들

제 1 원칙: 인간의 존엄성과 홍익사상

제 2 원칙: 기회 평등에 의한 교육

제 3 원칙: 소명을 따르는 교육

제 4 원칙: 인재를 중시하는 교육

제 5 원칙: 가정교육을 반석으로 하는 교육

教育革命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  
혁명



## 8.1.

### 교육혁명의 다섯 가지 원칙들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기강이 서지 않았던 나라들은 가치관의 혼돈으로 혼미의 사회를 거친 후 패망 했다.

반대로 교육기강이 바로선 나라는 비록 혼미가 와도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태평성대로 이어 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육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교육근본과 기강을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교육의 5대 기본원칙”을 수립했다.

제 1 원칙 : 인간의 존엄성과 홍익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교육

제 2 원칙 : 기회평등에 의한 교육

제 3 원칙 : 소명에 따르는 교육

제 4 원칙 : 인재를 중시하는 교육

제 5 원칙 : 가정교육을 반석으로 하는 교육



우리들의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국민계몽을 통한 참된 교육혁명을 성공해야 만이 삶의 가치가 풍부한 사회가 형성되어 선진교육대국에 진입 할 수 있다. 교육혁명의 근간이 되는 ‘국민교육의 5대 기본원칙’의 의미들을 풀어 본다.

## 제 1 원칙 : 인간의 존엄성과 홍익사상

우리나라는 단군왕검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사상을 교육이념으로 삼아왔다. 홍익인간사상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혁명에 의한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 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선진국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 1조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인기주의)을 제 1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국민교육제도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 제 1조로 하도록 개정되어야 된다.

## 제 2 원칙: 기회평등에 의한 교육

인간의 존엄성은 고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국가는 고아든, 가난한 자의 아이든, 부자의 아이든, 재벌의 아이든, 대통령의 아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녀들이므로 차별됨 없이 각자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교육기회평등원칙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므로,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교육기회 평등원칙은 앞에서 언급한 모순된 평준화 교육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다. 평준화 교육은 개개인의 재능과 소질을 무시한 채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교육기회 평등은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필요한 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서 재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기회부여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제 3 원칙: 소명에 따르는 교육**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던 지 사회에 봉사하고 협력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사회계층 개개인들에게 알맞은 재능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즉, 누구에게나 천직을 하나씩 골고루 주신 것이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씩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다. 누구나 타고난 자기만의 재능을 조기에 찾아서, 자신의 천직을 수행 할 수 있는 장인교육을 착실히 받는다면, 다들 성공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인이 되고 훌륭한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 **제 4 원칙: 인재를 중시하는 교육**

경쟁력 있는 훌륭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력을 키우려면 어느 분야든지 소홀함이 없도록 골고루 인재를 육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길러낸 인재들로 하여금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

지 못한다면 국가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다. 특히 석학의 자리에 오른 인재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한사람이 수백만 명 또는 수천만 명 이상도 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기회를 잃고 만다.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학한 해외동포 중에는 오래전부터 어려운 세계적인 명문교육과정을 거쳐 석학의 자리까지 오른 인재들과 예술인등 각 분야의 대가들이 많이 있다. 현실은 이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국력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인재를 중시하는 새로운 국민교육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 관계로 해외로 빠져나가 국력손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각 분야별로 정확한 통계를 내어 국가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제 5 원칙 : 가정교육을 반석으로 하는 교육

모든 교육의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육은 태교부터 시작되며 태교는 부부교구(夫婦交媾)시 사랑하는 마음가짐부터 시작된다.

과거 농경사회 시대에는 층층시하(層層侍下)에서 생활을 하는 대가족제도 덕분에 충효사상(忠孝思想), 예의범절(禮儀凡節)등 가정교육이 항상 지엄했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농경사회에서 도시중심의 현대화된 공업사회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대가족의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핵가족 제도하의 현실은 서구화와 함께 가치관이 변화하고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미풍양속이 사라지면서 가정교육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교육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단순히 핵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 물결을 타고 온 지난 30년 동안 ‘가장(家長)’은 항상 회사에서 밤늦게 돌아오므로 가족 내에는 가장이라는 명칭은 있었으나 실체는 부재중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 열풍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과외수업을 받고 밤늦게 귀가 하므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보낼 시간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정교육이 자연스러우면서 올바르게 실시되려면, 우선 아이들과 부모들이 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혁명을 통한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부모님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아주 많이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과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유럽의 예를 들면, 전통적인 조기조업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가정교육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다. 조기조업을 통한 가정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록 ‘책속의 작은 책’ 중 ‘유럽의 가정교육과 조기조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제 9 장

## 도약을 위한 새 국가교육시스템

- 9.1. 국가명장인가, 국가박사인가?
- 9.2. 산학병행교육제도(Dual-System)
- 9.3. 대학입학의 조건 및 제도에 대하여
- 9.4. 합리적인 대학운영 정책
- 9.5. 국가박사학위제도와 교수임용정책
- 9.6. 국립 대학들을 하나로 편재 개편



教育革命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 9.1.

### 국가명장 인가, 국가박사 인가?



#### 교육과정의 두개의 축, '국가명장' 과 '국가박사'

국민 누구나 타고난 소질들을 개발하고 그들의 재능들을 훌륭히 발전시켜 개개인들을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인들로, 필요한 수만큼 육성하여 각자가 스스로 만족하고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1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다.

새로운 국민교육제도가 기존의 국민교육과 다른 점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육과정의 두개의 축으로, 즉, 실기의 달인 '국가명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학문의 석학 '국가박사'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개개인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기본학교 6학년부터 진로를 분리하여 각각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구조는 자기의 능력에 힘겨운 교육을 받으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해진다. 반면에 자신에게 너무 쉬운

교육을 받으면 능력을 다 발휘 못하는 애석함이 불만으로 나타나 불평분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육이 실행되게 하는 것이 교육제도의 핵심이다.

### 진로 조정이 가능한 전학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이미 재능이 드러나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서는 산업학교와 인문학교의 진학을 5학년을 마치고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일부 학생들은 유년기에 자신에게 잠재된 소질과 재능을 보이다가도 사춘기 중반에 재능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유년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사춘기 중반에 우수한 소질과 재능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를 정확하게 수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5학년을 마치고 재능에 따라서 산업학교나 인문학교로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9학년이 되면 재능에 따라 기본학교와 산업학교 및 인문학교간에 서로 전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

진로조정기간이 아닌 학년 중에도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평행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한다.

## 9.2.

### 산학병행교육제도 (Dual-System)



21세기는 첨단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이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실기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현장에서 만들어 낼 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므로 과학입국은 반드시 과학자들과 명장들이 힘을 합쳐야만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은 바로 인식해야 한다.

1991년도 노벨물리학을 수상한 바 있는 피에르 질 드젠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특강을 한 내용 중에서 그는 “실습 없이 익힌 이론은 무용지물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론과 실기를 함께 가르치기 위한 시스템인, 새로운 국민교육제도하의 종합학교에서는 교양과 이론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하고, 실기교육(도제교육)은 산업체가 담당하여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는 도제교육제도를 저자는 ‘산학병행교육제도(Dual-System)’라고 정의한다. 이 제도는 유럽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오는 장인교육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장인교육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산학병행교육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질과 재능에 따라 누구나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기술을 감수성이 가장 좋은 시기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공업학교를 나와 기업에 들어가서 다시 기업체에 적합하게 재교육 및 적응교육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현장근무를 할 수 있다. 산학병행교육제도에서는 종합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병행해서 기업맞춤형 현장실기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의 대부분이 교육받은 기업에 취직이 되기 때문에 재교육이나 적응교육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현장 실기 교육기간 중이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며, 정년퇴직하는 생산직 기술자들의 공백문제를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용접장인, 선반장인, 조립장인, 주물장인, 자동차 부품 및 생산라인 장인, 반도체 생산 장인, 도자기 장인, 간호사, 스텐더 디스, 구두장인, 은행원, 양쪽장인, 미용장인, 이용장인, 호텔 및 요식업 웨이터, 제과장인 등등 약 12,000개 직업분야의 장인교육에

적용 된다.

현장실습교육과 기업경영에 있어 win-win 되는 산학병행교육제도(Dual-System)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벤츠와 BMW 뿐만 아니라 유럽의 산업전반에 걸쳐 실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독일회사들이 실시하므로 아메리카 대륙까지 퍼져,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욱 과학화 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

## 9.3.

### 대학입학의 조건 및 제도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누구에게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항상 열려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는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교육혁명이다. 이에 따르는 입학조건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자.

#### 대학입학조건 '현장실습제도'

새로운 국민교육제도가 기존 교육제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제도중의 하나가 '대학입학조건인 현장실습제도'이다.

산업학교 졸업생과 인문학교 졸업생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1년간 희망하는 전공분야의 현장실습을 완료 해야만 산업대학과 대학의 입학자격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는 대개 이론으로 시작해서 이론으로 끝나는 대학교육 때문에 대학졸업자들은 현장 감각이 절대 부족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 직업생활현장을 직접 체험해보고, 깊이 생각한 뒤 자신의 인생진로인 학과를 결정하는 현장실습교육제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되어 다시 전문대학에 가는 비극적인 일들도 자주 발생되고 있다.

대학공부를 시작하기 전 자기 전공분야의 현장에서 온갖 일들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인생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울 시간과 사회에 봉사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생활체험교육기간이 된다.

이렇게 하면 학과를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비율을 그 만큼 줄일 수 있으므로 잘못된 학과선택으로 빚어지는 크나큰 인생여정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생소하여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고 또한 대학을 가는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데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유럽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20년 후면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120세 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긴 항로에서 중요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젊을 때 투자하는 1년간의 현장체험이 나중에 시행착오로 인해 가져오는 몇 배나 되는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인생에 있어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개인의 시행착오는 국력손실을 가져오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새로운 교육제도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학에 입학하려면 1년 동안 전공별 현장실습을 의무화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학과를 선택하기에 앞서 미래의 사회진로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적성을 시험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 할 수 있어, 국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인턴사원 제도처럼 현장실습생에게 주는 실습수당(교통비 + 의료 및 산재보험료 + 생산수당)은 일반 임금과 달리 정부가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수준을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다. 실습수당은 정상적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 임금 법에 저촉이 안 되며 피교육자는 대부분 미성년으로 필요이상의 수입이 생기면 빼뺏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적정선을 정부가 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고임금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노동인력도 줄일 수 있다.

단기 도제제도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제도가 주는 또 다른 이점은,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실제 사정을 몸소 체험하여 알고 이해하게 됨으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사회에 봉사하는 참 뜻을 알고, 나아가 애국심이 싹트게 되며, 귀천 없는 직업의 중요성을 터득하게 된다.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젊은 청년들을 진정한 사회인으로 적응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성교육도 된다.

종합해보면, 대학입학 전 현장실습제도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발전에게도 기여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임이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 **충실한 소명의식이 대학 입학조건**

수험생이 평생 동안 자신이 택한 학과를 사랑하고 또 취미가 있으며 소질도 역시 겸비 했는지 즉, 소명에 따르는 천직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실기와 면접고시를 치루는 미술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 그림만 잘 그린다고 입학할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술을 정말로 사랑해 평생 동안 화가라는 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 및 창의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 하나만은 기능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작품세계를 개척할 능력이 없어 화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입학할 허가 되지 않는다.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의 경우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의사가 천직에 맞는지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평생 지켜나갈 수 있는 소명의식을 필수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특히, 언론학과(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 수험생은 평생 동안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언론인의 성격과 진실성, 지구력, 판단력, 그리고 언론에 대한 사명감과 인존권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테스트를 필수적으로 한다.

언론인들은 민주주의 수호자들로 국가정책 및 정치가들을 비판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최고의 지성인들이다. 언론인들이 천명을 망각하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언정유착’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정신문화를 말살 시킨다. 이는 마치 축구경기에서 11대 14명(선수 11명 + 심판3명)으로 경기를 진행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언론인들이 ‘언정분리의 소명’을 소홀히 한다면, 사회기강과 국정의 공정성이 사라지고, 서민의 고통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자들이 점차 사라져서 결국 나라는 혼미해지고 패망하게 된다.

언론인들을 육성하는 ‘신문방송학과’들은 어느 학과들과 달리 ‘민주주의수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학입시 때부터 철저하게 인품과 소명을 검증받게 한다.

## 외국인에게도 대학정원의 5%를 열어준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유학 오는 사례가 많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국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없어지게 되면 대학정원 5%선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현장실습을 입학 전에 완료해야 하며, 한국어 강의를 듣고 이해 할 수 있는 수강능력 평가를 위해 ‘한국대학입학 한국어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대학에서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대학입학 국가고시의 준비프로그램인 ‘한국대학 예비과정제도’를 국내외에 제공하고, 그 기간은 1년(두 학기)으로 하고 학비는 없다.

한국대학예비코스의 입학자격은 자국에서 12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한국어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은 ‘한국대학입학 한국어고시’ 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업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자국의 학제와 국내학제 간에 격차를 없애주는 이 프로그램은 정규대학에서 유학할 학생들에게는 인문학교의 학습내용들을, 그리고 산업대학에 유학할 학생들에게는 산업학교의 학습내용들을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두 학기(1년) 내에 총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이유는 전문용어들을 한국어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주는 동시에 자국의 학제에서 배우지 못하여 부족

했던 내용들까지 보충해 주는 제도이다.

졸업 전 또는 후에 ‘한국대학입학 한국어고시’에 합격하면 이들은 한국학생들과 똑 같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들도 모든 과정은 외국인이라고 우대하거나 자격을 완화시켜주는 일 없이 한국대학생들과 동등하게 적용한다.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대학에서 교육받게 되면 외교통상적인 유대관계가 돈독히 발전하게 된다. 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면 한국은 그들에게 제 2의 고향이 되어 지속적으로 친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분야에서 자국의 지도자가 되면, 양국의 이해를 증진하는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된다.

전 세계를 우리들의 진정한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해야 우리들의 상품들이 전 세계 시장들에서 활발히 유통되게 된다.

우리들은 한국에서 공부한 외국 유학생들을 외국어의 통역 매체로 쓸 필요 없이, 그들이 공부한 한국어로 통용하게 된다.

유학생들의 박사논문들은 한국어로 집필하도록 규정한다. 독일 공과대학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 분야의 논문은 반드시 독일어로 쓰게 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독일어에 능해야 학위를 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언어장벽이 곧 기술보안과도 직결되는 방화벽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유학생 국내유치는 외국자본유치보다 더 중요한 국가 장래

를 위한 기본 투자이다. 자본은 빠져나가면 그만이나, 교육은 많지 않은 투자이긴 하지만 유학생 개개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유효한 영원한 투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흔히들 자원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정성을 다하여 육성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진정한 우리의 자원이요 자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연자원이 척박한 이 땅에서 지구촌의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키워서 고갈되지 않고 늘어 가는 미래의 풍부한 자원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확보해야만 한다.

## 9.4.

### 합리적인 대학운영 정책



#### 학점제 폐지 및 대학졸업국가고시 실시

대학입학은 현장실습을 완료하고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지면 대학 입학의 시기도 학기별로 각자가 정해서 입학하게 되며, 공부하는 기간은 모든 학과들마다 다르고, 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기간도 다르다. 그러므로 학점제는 폐지되고 ‘대학졸업국가고시제도’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보면, A라는 학생은 자연과학분야인 물리학과에서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B라는 학생은 기술 분야인 기계공학을 공부해서 기계공학자가 될 길을 택했다고 할 때, A에게는 물리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므로 순수과학은 과목이 많지 않아서 학부과정에서 요구되는 ‘국가학사고시’는 6과목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B의 경우, 기계공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관련 과목들을 공부해야한다. 기계공학은 모든 관련된 학문의 응용이 필요하므로 기계공학에 필요한 학부과정이 요구하는 국가학사고시는 12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과목수를 보더라도 B는 A보다 약 2배의 공부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A와 B가 공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A와 B는 공부기간 중에 수학, 물리, 화학 등은 다 같이 듣는 과목들이다.

강의실도 1000명 이상이 입실할 수 있는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같이 듣고 실험실습도 같은 교수 밑에서 함께 한다. ‘국가학사고시’도 똑 같은 시험을 보게 된다.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공학도와 자연과학도는 기본이 되는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같은 교수 밑에서 다 같이 배우게 된다.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보다 수학과 물리학 등을 적게 배우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학과마다 공부를 하는 양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기간도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가석사고시’ 역시 A는 6과목 B는 12과목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학과에 따라 공부하는 기간이 자연히 다르게 된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전공과정인 2차 국가고시까지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평균 5년,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평균 8년이 걸려야 정규대학의 공부를 마친다. 그 이유는 어느 학과를 공부하던지 그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과목들을 다 공부해야만 실력 있는 전문연구

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과마다 필요한 학문의 내용과 깊이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학년이나 학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범위와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우리나라 대학제도 중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적용해 왔다. 학점제는 적용하였지만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 다른 일반대학학과들과는 다르게 적용하였듯이 새로운 대학제도에서는 모든 학과가 특성에 따라 과목과 교육기간이 다양하게 적용되게 된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국가고시를 거쳐 졸업논문을 끝내는 순간이 졸업이므로 일 년 열두 달 내내 수시로 졸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식이 별도로 없다.

## 학자금 대여정책

교육혁명이 단계별로 진행되어 새로운 국민교육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국립대학 등록금이 없으므로 현재의 등록금 면제 형태의 장학금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없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걱정해야할 될 경우가 발생한다. 교육기회 평등원칙에

의해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은 대등한 조건 하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모들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학생은 국가에서 학자금 대여하는 정책인, ‘대여 장학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대여 장학금은 공부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로, 국가로부터 빌려 쓰고, 본인이 사회인이 되어 수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무이자로 원금만 장기분할상환 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의 엘리트로서 많은 연봉을 받게 되므로 원금만 장기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부담이 거의 없다.

### 효율적인 대학학습운영

대학교의 강의는 고등학교 수업의 연장이 아니다. 대학교의 강의 형태도 선진국들과 같이 능률적으로 바꾸고, 기존의 고등학교 식 교실수업은 폐지하며, 대규모 강의실을 이용하여 교수들의 강의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예를 들면 물리, 수학, 화학, 생물, 기계, 건축, 토목, 금속, 광산, 야금 등을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물리는 필수과목이다. 교수는 학생들을 한 강의실에 모아놓고 단 한번 물리강의를 하는 것으로 같은 강의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절약되는 시간을 교수의 고유 업무인 연구에 전념하게 한다.

‘대학졸업국가고시’를 위한 예비시험들은 현행 교육제도의 학기 말고사로 치르고, ‘국가학사고시’ 및 ‘국가석사고시’는 신청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법정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시는 학기의 방학기간 마지막에 치른다.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한 번만 더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같은 과목을 두 번 불합격할 경우에 제 7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과목이 들어 있는 학과에서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혁신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선진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선진국의 교육정책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잘 수용되는 훌륭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수 년 이내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교육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

## 9.5.

### 국가박사학위제도와 교수임용정책



#### 국가박사학위제도

새로운 국민교육제도가 실시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논문을 집필이 허가되는 명단에 등록하기 위해 ‘국가박사후보등록고시’에 합격해야한다. 합격된 사람은 연구과제와 지도교수를 정해 국가박사위원회로부터 박사논문을 집필하기 위한 연구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국가박사후보자가 될 수 있다. 국가박사 학위로 인정받은 교수들과 국가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들만이 국가박사후보자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국가박사위원회로부터 박사학위심사를 신청하려면 먼저 인격심사를 통과되어야 된다. 인격심사는 ‘국가박사학위자 신원조회법’을 입법하고 실시한다.

이 법의 내용은,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는 행위, 도로에 침을 뱉는 행위, 그 외에도 사소하나 정직하지 못한 행위 정도의 경범이라도 인격에 관한 것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박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기위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국가박사학위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학문과 인격 면에서 각별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들은 ‘국보명인’임을 공인받고 신변보장과 신분에 걸맞은 작위예우와 함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뜻있고 명예로운 삶의 의무를 함께 부여받게 된다.

국가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국가박사학위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하여 국가박사로서 명예를 손상(날조, 위조, 표절)했거나 박사학위 후 일상적인 생활품행들이 반듯하지 못했을 경우(매국행위, 경범누적, 부정행위, 정경유착, 언정유착,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등)에는 국가박사학위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박사학위를 박탈 할 수 있다.

국가박사에 관한 법령들이 제정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교수들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논문표절시비나 “줄기세포 논문”에 대한 시시시비처럼 국제적으로 신뢰상실과 국력손실을 유발시키는 소모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대학교수 임용정책

국가박사학위 취득 후 최소한 6년 이상 현장실무 연구경력을 갖추고 자기의 전공에 실기와 이론을 확실히 겸비한 학자로서 교수논문이 국가박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교수'칭호를 수여받게 된다.

그들 중에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임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학의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정교수는 교수로 10년 이상 전공분야의 경력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교육부 장관직은 교수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될 수 있다.

교수 임용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현장연구경력 있어도 곧바로 모교 대학에서 교수가 될 수 없다. 이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반드시 세계적인 전문을 넓히고 나서야 교수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앞에서 말한 '특별한 경우'란, 대학에 임용될 담당 과목 교수가 모교출신 외에는 없는 경우이거나, 국내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소지가 있는 첨단 분야 이거나, 다른 대학에서 정교수로 연구소장의 경력을 소지한 석학의 경우, 그리고 노벨상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을 수상한 경우 등을 말한다. 정교수만이 대학연구소의 연구소장이 될 수 있다.

## 9.6.

### 국립대학들을 하나로 편제 개편



전국 정규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대학교로 통합 편성하되, 각 대학마다 전공별로 특성을 갖는 정규대학으로 재편성한다.

국립대학을 통합하고 편제를 개편하는 방법은 현재 있는 대학의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학과목별로 통합하여 각 지방별 특성에 따라 분산재배치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치대학 법학대학 상과대학 등은 수도권 서울대학교에, 전자공과대학은 전자산업단지인 구미의 금오공대로 통합하는 형식으로 각 지방의 기능에 맞추어 재배치를 한다.

재배치가 완료 되면, 규모가 큰 학과의 경우는 하나의 대학으로 구성될 것이고, 규모가 작은 학과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학에 여러 개 학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학과는 한 대학에만 있게 되며 다른 대학과의 중복되는 현상은 없게 된다.

이렇게 재배치를 하는 이유는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학이 동일한 전공학과를 가지고 있어서 연구 설비가 분산 및 중복투자 되어있고, 교육예산을 분산하여 집행하므로 전반적으로 연구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연구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는 현행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학과별로 한 대학으로 집중 시키면 이중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게 되므로 고가의 최첨단 연구시설도 쉽게 확충할 수 있고, 전공분야의 석학들도 집중되어 대학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규모가 큰 학과의 경우,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는 전자공학대학, 기계공학대학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며, 학과 내에서도 정교수의 전공분야에 따라 수많은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부 전공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관련된 연구소가 인접하므로 연구소간에 상호 보완역할을 하는 시너지효과도 매우 커진다. 그리고 대형국책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

단일대학으로 통합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앞에서 언급한 장점뿐만 아니라 많은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첫째: 각 학과목별로 대학이 하나이므로 사회에 나와서 경쟁하는 동종업계의 이기주의적인 학연이 없어진다.

둘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분산 재배치되므로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다.

셋째: 집중의 효과로 국내 최고의 석학과 최첨단 연구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중장기 초대형 국책프로젝트도 수행이 용이하게 된다.

넷째: 대학의 연구능력이 강화되면, 지역 산업단지의 기업들로부터 대학연구실로 연구프로젝트 의뢰가 증가하게 되어 산학협력이 활발해지며 대학의 재정도 좋아진다.

다섯째: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므로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전문학과별로 대학 기숙사에서 공부하게 되어 지방색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여섯째: 하나의 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하므로 전공분야에서 상호 간의 실력과 능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능력중시의 사회가 되며, 기존의 사회문제화 되었던 학벌중시 풍조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일곱째: 하나의 체제하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전공 분야별로 공정한 경쟁을 거쳐 실력 있는 지도자들이 육성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내부의 시스템이 단일화 되어서 국가의 힘과 과학기술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된다.

교육혁명이 시작되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국립대학을 통합 재배치되고, 등록금이 폐지되고, 교육기회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잣집 자녀이든 가난한집 자녀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학문을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평가되어, 훌륭한 인재를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재들을 발굴하여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로 육성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국립대학들이 재편되면, 전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국립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게 되어 수준이 높아지고, 교수진도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하게 되므로 세계 최고의 대학이 탄생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국립대학에 유학하기를 꿈꾸며 줄을 서게 될 것이다.

‘멀지 않는 미래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에서 육성되므로 21세기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자신 있게 확신한다.



# 제 10 장

## 국가명장 제도에 관하여

- 10.1. 명장들이  
과학기술강국 만든다!
- 10.2. 유럽의 장인교육이 길러낸  
한국인 명장들
- 10.3. 산업선진국의 역사는 바로  
장인의 역사
- 10.4. 고부가가치는  
명장들의 손끝에서
- 10.5. 국가장인교육제도  
실시와 활성화 방안



教育革命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 10.1

### 명장들이 과학기술강국 만든다



우리나라는 한 때 ‘아시아의 용’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었다.

그렇게 된 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장인들이 대접받았던 시대’ 이었다. 그 이후 장인들의 중요성이 계승되지 못하게 되어 기술입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감각마저 완전히 잃어버렸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대학생비율이 가장적인 나라이나, 장인교육의 모범국가 이다. 스위스의 경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국가기능사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기능보유자가 아니고는 공업국의 관리인, 그것도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적립되어 있다.

1995년 저자는 대구광역시장 자문역으로 문희갑 시장과 함께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시를 방문하여 벤츠사 투자 유치를

위해 롬멜 시장과 면담한 적 있다. 대화중에 문 시장께서는 “슈투트가르트에는 벤츠그룹 등 유명 회사들이 많고 해서 임금이 최고 비싼데 어떻게 기업들을 운영해갑니까?”하고 물었다. 그때 롬멜 시장은 “임금이 아무리 상승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에 종사하는 장인들의 능력이 더 빨리 상승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든다면 임금은 두 자리 수를 오른 적이 없지만, 컴퓨터와 로봇의 시설투자로써 장인 한 사람 당 생산능력은 100배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인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인들의 기능향상 속도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에서 우리들은 독일은 장인(Geselle 장인, Meister 명장)들의 천국이며 장인들의 실력이 세계 최고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문 시장이 “대구광역시 주위에는 10개 대학들이 있어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곳입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롬멜 시장은 “대학졸업자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장인교육기관들은 얼마나 되며 ‘국가명장’들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우리도 국가명장들을 우대함으로 기술입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2,000종류의 직업들이 있다. 이런 직업들을 잘 분석하여 필요한 장인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명을 성실히 실행해야 한다. 교육혁명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 연구에 필요한 연구원들을 선발하고, 연구에 필요한 재정도 확보해야 된다. 서양선진국에 앞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민족에 적합한 선진교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 10.2

### 유럽의 장인교육이 길러낸 한국인 명장들



선진국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나 다 직장을 가지도록 장인 교육정책을 잘 실행하고, 어떤 직업도 귀천이 없으며, 자기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회를 만드는 나라이다. 우리 국민들은 재능이 뛰어난 민족이다. 그러므로 유럽 선진국과 같이 장인교육만 잘 실행한다면, 유럽보다 더 잘사는 장인사회가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의 장인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독일국가명장으로 육성된 한국인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독일 화훼장식 명장(Meister Florist)이 된 방식 씨이다. 방식 씨는 화훼장식기술과 예술을 접목 시켜 88 올림픽 때 각종 행사장, 경기장, 도시미화를 위한 화훼장식

으로 올림픽 이미지와 국가의 이미지를 승화시키는 소중한 작업을 훌륭히 해 냈다. 온 국민들과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선수와 임원 사절단원들은 물론 TV를 보는 시청자들 까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방식 씨가 독일에서 화훼장식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학교 원예학과를 나온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꽃에 대한 모든 전문지식들을 갖추어야만 했다. 화훼명장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종합학교, 기능장학교, 장인학교, 명장학교를 다녔든 기간을 합치면 최소한 8년이나 필요했으며, 모든 꽃들을 심고 기르는 방법부터 철저히 공부해야 하고, 모든 꽃들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미적인 꽃 장식 감각이 뛰어나야만 비로소 명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예로, 지금도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최초의 파이프오르간 제작 명장인 구영갑 씨는 공부하고 실습하는 과정이 박사 학위 만큼이나 어려운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들인, 음악, 건축, 신앙, 재료, 목공예, 금속공예, 기계공작 등의 각종 장인훈련들을 통과하고 한국인 최초로 이 분야에 세계적인 독일 국가명장이 되었다.

이 두 분이 유럽을 가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명장이 되었을까? 물론, 이 두 명장은 유럽의 장인교육 시스템이 있었기에 명예로운 독일 국가명장이 된 것이다. 하지만 재능이 없었다면 결코 명장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재능과 훌륭한 장인교육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야만 훌륭한 명장이 탄생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겐 타 민족 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유럽과 같은 훌륭한 장인교육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도 새로운 국민교육제도를 통하여 체계적인 장인교육을 실시하면 앞으로 유럽보다 더 훌륭한 국가명장들을 많이 육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10.3

### 산업선진국의 역사는 바로 장인의 역사



우리들의 역사로는 조선시대 때 ‘장인’을 천시했기 때문에 고려 청자를 비롯한 중요한 기능과 기술들의 맥이 끊어져버렸다. 반면에 일본은 장인들을 중시했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로부터 강제로 끌고 간 ‘장인’들을 도리어 우대했다. 장인들에 관한 그런 철학의 차이가 오늘날 한일 두 나라 기능과 기술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죠또, 토발드손, 베르니니, 라파엘, 보티첼리, 듀러, 렘브란트, 루빈스 같은 세계적인 수많은 천재 예술가들 역시 스승의 공방에서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기량들을 발전시켜 ‘르네상스’라는 유럽문화의 꽃을 피웠으며, 그들의 기능과 기술들은 오늘날 까지 전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와 고려 때는 장인들이 대우를 받았으나, 근대조선 시대에 와서 천시되는 바람에 수천 년을 이어오던 우리민족의 장인의 전통들이 무너져 고려청자기를 비롯하여 그 많은 기술들이 맥을 잇지 못했다. 지금의 혼미 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핏줄 속에 잠재되어 흐르는 훌륭한 ‘명장의 도’를 찾아내고, 복원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무언의 의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명으로 남아있다.

스위스는 중세 때 유럽의 최빈국으로 국민들이 용병으로 팔려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렇던 스위스가 오늘날의 부와 명성을 가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알프스의 공업선진국이 된 것은, 근대 장인교육의 아버지인 ‘페스탈로치’가 장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인들을 육성하는 장인교육을 외친 덕택에 정밀제품을 생산하는 공업국으로 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스위스 공산품은 세계적으로 최고가이며 그 신뢰도 또한 최고다. 과학기술의 노하우를 직접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장인정신’이다. 장인들의 역사는 바로 산업선진국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우리들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장인정책의 중요성 즉, ‘명장의 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인보국정책’을 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장인들을 정책적으로 실질적 우대를 하고 모든 국민들이 일인일기를 습득하도록

현장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 일인일기를 국가생존의 기틀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범적인 나라 스위스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명장들이 겨우 몇 명 정도 탄생된다.

그러나 한해에 (고등)고시의 합격자는 1,000명이 넘는다.

우리들도 장인들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명장제도를 활성화 하여 많은 명장들이 육성되는 정책을 정부는 실시해야한다. 훌륭한 명장이 있어야만 장기간의 산학 병행교육을 실행하는 도제교육 과정들과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한 인성교육 과정들을 올바르게 실시 할 수 있다.

## 10.4

### 고부가가치는 명장들의 손끝에서



독일 뮌헨공대 내에 있는 국립 ‘막스 플랑크 외계물리연구소’는, 외계로부터 지구로 비쳐지는 각종 우주 광선과 방사선에 관해서 다양하게 연구하는 기초과학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연간 9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는 특수연구소다.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 회전하는 인공위성에 장착된 ‘집광장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비에는 중요한 부품인 80cm직경의 오목거울이 부착되어 있다. 이 장비가 외계로부터 발광되는 광선들을 집광하여 지구에 있는 이 대학연구소로 발신한다. 연구소로 송신된 광선들을 분석하여 우리들이 사는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분석하며, 인체에 해로운 광선이 대기권 안으로 침투할 때 필요한 대책들을 연구하는 곳이다.

이 집광장비는 매년 우주공간에 2개씩 설치하는데, 따라서 오목 거울도 2개가 필요하다. 오목거울의 정밀도는 1/1,000mm 이하 오차의 초정밀가공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계로는 도저히 이 거울을 제작할 수 없고 오직 오래 동안 숙련된 명장의 손끝육감으로만 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거울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는 지구상에 단 두 사람뿐인데 두 분 다 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는 30명의 박사학위 과학자들이 연구하며, 30명이나 되는 명장들이 각각 연구에 필요한 연구용 장비들을 직접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연구소는 걱정이 태산이다.

그 이유는 30명의 연구소 명장들 중에도 아직 그 두 명장들을 대신할 정도의 기술을 가진 후계자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교통사고라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두 명장이 동시에 사망한다면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고 연구소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들이 주력해야하는 고부가가치 생산품들 중에서 대부분들이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1/1000mm 라는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분야들은 바로 명장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다. 절대로 기계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명장들이 많이 육성되었을 때 비로소 세계최고의 명품(예술품)들을 생산 할 수 있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타고난 천부적인 손재주로

독창적인 세계최고의 고부가가치의 명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바로 우리민족이다. 현재 스위스의 수제품은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아 아주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명품시계 하나가 최고급 자동차 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손재주는 천부적으로 스위스를 훨씬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다. 이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10번 이상 제패한 저력이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세계최고의 손재주를 자랑하는 명장들의 작품들을 전시 판매하기 위한 ‘명장백화점’을 한국에 개점하여 지구촌의 부자들이 세계 최고의 명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대한한국으로 몰려들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훌륭한 명장들을 육성하는 정책은 기술입국의 명성을 세계정상에 올리는 막중한 국가소임이다.

## 10.5

### 국가장인교육제도 실시와 활성화 방안



국민의 80%는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 간다. 그중에 제대로 장인교육을 받고 당당한 명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장인들이 현대사회에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우리사회의 폐단 때문이다.

장인들이 현대 산업사회의 실질적인 기둥임에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부족으로 너무나 천시되어 왔다. 장인들이 없으면 이 사회는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인들의 노고에 칭찬하고 대우해주는 데는 정말로 인색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방식 씨와 구영갑 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도 장인들이 명예롭게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성과 기능을 겸비한 올바른 장인교육제도를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국민교육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인교육제도를 정비하고 활성화 하게 된다.

1. 종합학교를 이수하고 ‘국가기능사고시’에 합격하면 ‘국가 기능사’(약어로 ‘국기사’)가 된다.
2. ‘국기사’로 5년 이상 경력을 쌓고 기능장학교(2년~3년 코스)를 이수하고 ‘국가기능장고시’에 합격하면 ‘국가기능장’(약어로 ‘국기장’)이 된다.
3. ‘국기장’으로 5년 이상 경력을 쌓고 장인학교(2년~3년 코스)를 이수하고 ‘국가장인고시’에 합격하면 ‘국가장인’이 된다.
4. ‘국가장인’으로 5년 이상 경력을 쌓고 명장학교(2년~3년 코스)를 이수하고 ‘국가명장고시’에 합격하면 ‘국가명장’이 된다.

장인교육 4단계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기사’로서 정식으로 사회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직장인으로 출발을 한 후 세월이 지나면서 현장기술도 급속도로 변화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매 5년마다 ‘기능장학교’ ‘장인학교’ ‘명장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게 하여 각자 전문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추가교육 및 고급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육학, 교육심리학 및 해당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하게 하여 후진양성을 위한 지도자로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11 장

## 새로운 기적, 봄이 오는 소리!

- 11.1. 이 땅에, 봄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 11.2. 존경 받는 선생님,  
    능력 있는 학생!
- 11.3. 유능한 공무원이  
    넘치는 나라!
- 11.4.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 11.5.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 11.6. 세계 각국의 인재를 육성하는  
    스승의 나라



教育革命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 11.1.

### 이 땅에, 봄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앞에서 설명한 교육혁명이 성공하고, 새로운 교육제도가 정착이 되면 대한민국은 흐트러진 질서가 바로 잡히고,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되살아나서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교육이 무질서하게 시행착오를 거듭해오면서 우리사회에서 아름답던 미풍양속들이 많이 사라졌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대학입시와 과외수업에만 열중하다보니 도덕심과 사회기강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로 군주와 스승과 아버지는 공경의 대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공경심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혁명이 성공하면 사라진 공경심도 점차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혁명이 성공되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가정의 기강이 회복된다. 앞에서 설명 하였듯이 과외수업으로 인해 밤늦게 까지 시달리는 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대화가 단절되고 거리감이 생긴 가장 큰 이유이다.

과외수업이 사라지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동안 부모와 자식 간에 무관심 했던 생활에서 사소한 일에도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자녀들과 같이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동안 못 보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주 찾아뵙게 되어 가정에는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되살아나게 된다.

## 11. 2

### 존경받는 선생님, 능력 있는 학생!



교육혁명은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다. 지난 수십 년간 입시위주의 수업방식과, ‘선다형 시험제도로 인한 정답과 비슷한 사이비 예문을 개발하기 위해 불필요한 학습연구에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하던 교사들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로 위상이 추락되어버렸다.

과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할 만큼의 스승에 대한 공경심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공교육이 되살아나면 교사들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참다운 스승으로 인성교육에 주력하고, 학생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여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찾기에 주력하게 됨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도 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고 사라진 존경심도 되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자연히 의욕이 살아나 밝고 활기찬 교육환경조성에 온 힘을 다하게 되어 한국고유의 아름다운 교육기강이 되살아나게 된다.

교육혁명의 결과로 부모님과 선생님을 대한 공경심이 되살아나면 자연스럽게 밝은 사회가 되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가 도래하게 된다.

## 11.3.

### 유능한 공무원이 넘치는 나라



지금은 군주시대가 아니라 민주시대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군사부일체의 군주의 의미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가최고지도자를 의미한다.

국가지도자에 대한 존경심도 살아나야 국가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을 위한 훌륭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성공될 수 있다. 국가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은 국민들에게 무작정 존경하라고 해서 존경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가 지도자와 정부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에서 정부의 손과 발이 되는 모든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정직해야 하며, 자신의 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자신의 손과 발이 되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동용하지 못하면, 국정의 효율성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어, 국민의 존경심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정은 최고지도자 한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팀을 이루어서 실행하는 것인데 팀원의 자질이 부족하면, 팀 전체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첨단 과학 기술시대인 21세기에서는 국가최고지도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안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부도 70% 이상이 이공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독일 여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Bundeskanzlerin Frau Dr. rer. nat Angela Merkel) 박사도 정치학자가 아닌 물리학의 석학이다. 물론 그분이 물리학만 연구한 것은 아니라 물리학의 석학의 자리에 오른 후 학위만 안했을 뿐이지 정치학과 경제학 등 국가지도자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독일 기민당의 정치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 정치재단’에서 국가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독일의 공무원들도 일반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독일 뮌헨시의 시청공무원들의 인적 구성은 전문직이 75% 일반직이 25%로 되어 있다.

국민에 의한 교육혁명으로 새로운 교육제도가 정착되면, 지도부 공무원의 채용조건이 기존의 고시제도가 아니라 해당부처의 전문성에 맞추어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가 최고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불신

에서 존경심으로 바뀌게 된다.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 국가공무원들의 수준과 같다고 한다. 최고의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어야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게 된다. 국가와 기업을 비교 했을 때, 모든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에 몰리게 되면, 정부부처에서는 기업보다 수준이 높은 정책들이 탄생될 수 없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정의 막중한 업무와 광대한 조직을 갖춘 효율적인 정부가 탄생하려면, 기업보다 훌륭한 최고의 인재들이 등용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인재로 발탁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근무환경이 교육혁명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조성되게 된다.

이는 앞으로의 지도급 공무원들은 엄격한 대학졸업국가고시를 합격한 사람들과 국가박사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최고급 인재들로 구성하여 능력에 걸맞은 최고의 위상과 대우가 보장한다. 최고의 대우를 보장받게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정경유착이나 어떠한 비리도 없이 정직하고 순수하게 천직을 성의 있게 수행하는 청백리의 고유전통이 되살아나게 된다.

교육혁명이 시작되면 정부 각 부처에는 최고의 전문적인 장관들을 비롯하여 소속 공무원들은 세계각지로부터 능력을 쌓은 최고의 전문 인재들이 등용 되어 진정으로 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세계 최고’라는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된다.

## 11.4

###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21세기 과학기술과 문화변천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최근 50년 동안의 변화가 지난 2000년간 변화 한 것 보다 훨씬 빠르다.

국가산업을 인체에 비유하면, 하체는 ‘Low-Tech.’로 기초산업인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이고, 몸통은 ‘Middle-Tech.’으로 기간산업, 기계공업, 전기공업, 중화학공업, 제약업 등 주로 제조업이며, 머리는 ‘High-Tech.’로 지식기반산업, IT산업, BT 및 우주항공산업 등이다. 건강한 인체를 갖추려면 머리에서 몸통 및 하체까지 균형 있게 발달 해야만 하듯이, 강건한 국가가 되려면 모든 산업분야가 고르게 시대의 요구와 부합되도록 발달되어야 된다.

국민에 의해 교육혁명이 성공하면 창의적인 교육제도가 실시되어,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살려 모든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이 훌륭하게 육성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건강한 국가체제를 갖추

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직업에 귀천 없이 대를 이어가는 훌륭한 전통이 수립되게 되므로 21세기를 선도하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다.

대한민국이 21세기 과학기술을 선도하게 되는 이유는 ‘학자-명장 융합제도’를 적용한 새로운 연구시스템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로 탈바꿈되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대학교로 개편하고, 최고의 연구 인력들과 최첨단 연구시설들이 집중투자 되게 되어 한 학과 내에도 수많은 연구소가 설립될 것이고, 각 연구소장인 정교수 밑에 여러 명의 교수진과 연구진들이 구성될 뿐만 아니라 ‘학자 + 명장 융합제도’에 따라 연구 인력들의 숫자 보다 더 많은 장인들을 배치되게 된다.

이들은 최고의 현장기술을 보유한 실기의 달인들로서 첨단연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실험 장비와 기계 등을 신속하게 연구소 내에서 손수 제작하여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기가 융합되게 됨으로 학자들의 생각과 꿈을 명장들이 창작물로 실현시키는 제도이다. 연구결과물들은 자연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융합제도가 계승 발전되게 되면, 대를 이어 노벨상을 수상하는 학자가족들과, 이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를 이어가며 이론을 실증시켜주는 명예로운 명장가족들이 융합되는 새롭고 아름다운 과학기술세계를 만들어 가게 된다. ‘학자-명장

융합제도'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도제제도와 같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며, 유전적인 영향을 받은 특별한 재능들을 탁월하게 발휘될 수 있게 되는 '대를 잇는 인재육성제도'이다.

대를 이어가는 '학자+ 명장 융합제도'가 정착되면 앞으로 신물질 개발, IT, BT, 환경, 우주 등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분야와 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과제들을 연구원과 명장들이 대를 이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하게 된다.

## 11.5.

###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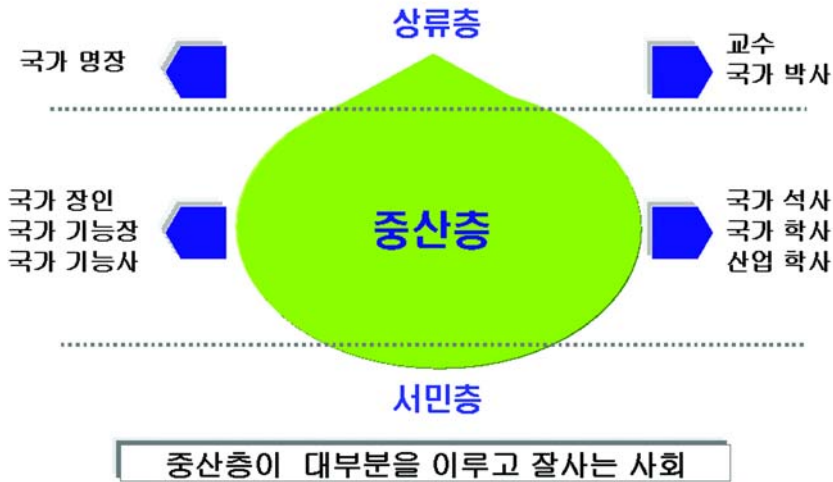
교육혁명의 최종 목적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 천직을 수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의 차이가 크지 않는 중산층을 이루어 고루고루 잘사는 양파모양의 선진국형 사회구조가 이룩되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과거 공산주의가 부유한 지주계급의 재산을 탈취하여 '다 같이 잘살자'는 모토아래 서민들에게 나눠 주었지만 결국은 다 같이 못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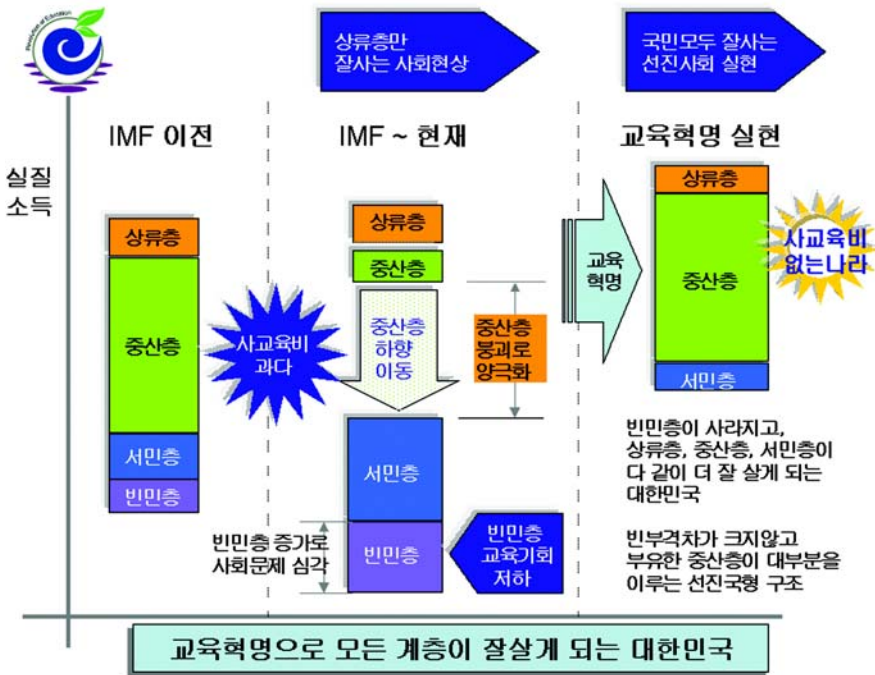
## 양파 모양의 선진국 사회구조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교육의 평준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인재가 하향평준화가 되어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게 된 것이다.

‘국민에 의한 교육혁명’에 의하여 새롭게 탄생되는 대한민국은 서민층과 중산층과 상류층 등 계층 간의 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과정에서, 하향평준화를 야기하는 공산주의식 분배방식이 아니라, 복지로 빈민층이 없어지고, 서민층은 잘살게 되며, 중산층은 부유해지고, 상류층의 재산과 지위가 보장되면서도 온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사는 나라로 발전된다.

새로운 산학병행교육제도에 따라 ‘자랑스러운 장인들의 사회’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가계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대학입시제도의 혁명으로 지출이 불필요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고통도 사라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증가되어 계층 간에 부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고루고루 잘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의 실질국민소득과 삶을 수준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높여주므로 다함께 행복하게 잘사는 복지국가 건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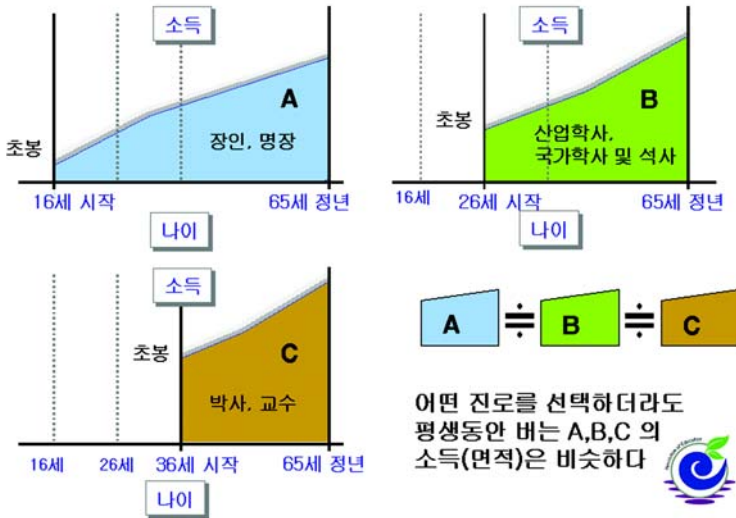
국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衣食住)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제도는 국민 누구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필요로 하는 맞춤형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의.식.주.건.육(衣.食.住.健.育)을 정부가 보장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발전 된다.

새로운 국민교육제도가 실시되면, 장인들은 16세 때부터 돈을 벌게 되어, 대학졸업자 보다는 10년을, 박사 보다는 20년 먼저 경제력을 갖게 된다. 정년기준을 65세로 기준했을 때, 장인들이 65세까지 50년간 받은 급여액에 이자를 합한 액수와, 대학졸업자로서 40년 동안 받은 급여와 이자를 합한 금액과,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30년간 받은 봉급과 이자의 총액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되므로 국민 각자가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룩된다.

결론적으로 교육혁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은 명장과 학자 어느 쪽 길을 선택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정년퇴직까지의 쌓인 총 수입은 누구나 비슷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진로를 선택하게 되어, 남의 이목이 두려워 자기의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인생행로를 굳이 애써 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된다.

### 진로 별 평생소득



지금과 같이 학벌을 위한 대학진학은 무의미 하게 되며, 어떤 직업이든 귀천 없이 다 소중하여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므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진정한 복지선진국이 이룩된다.

국민누구나 평생수입이 비슷한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를 이끌어 가게 된다. 경제적인 부와 이익에 비해 남들보다 몇 십 배 엄청난 고행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정을 거쳐,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고행을 감내하는 인격과 자질을 갖춘 자들만이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과정은 어느 과정보다 힘든 시련과 노력을 감수해야 하며, 보통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들만이 선별되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한 교육과정들이 새로운 교육제도에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을 때에도 일신의 영달보다는 국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게 된다.

필자는 교육혁명을 시작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도 따라 올수 없는 '세계 최고의 교육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잘사는 선진한국이 이룩됨을 굳게 확신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비누' 와 같이 자기 몸을 깎아 남을 깨끗하게 해주는 순수한 희생정신으로 과거의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정신적으로 재무장하여 교육혁명을 실천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소명을 실행하길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 11.6.

### 세계 각국의 인재를 육성하는 스승의 나라



한국의 젊은이들이 배우고자 몸부림쳤던 60년~70년대에는 한국 내에서 몇 개의 대학이 겨우 맥을 이어 갈 정도였다. 세계적인 명문대학과 비교는 상상도 못했었다.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 또는 세계적인 인재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해외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야만 했다. 당시 국내 대학에서는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줄 훌륭한 교수가 없었고, 과학기술을 위한 실험실습 장비나 설비라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민주화의 격동기인 60년~70년대의 젊은이들은 나라도 재건해야 했고, 근대화도 해야 했고, 민주화도 해야 했고, 민주화 이후의 태평성대를 이끌어 갈 장래의 국가지도자들도 육성해야 했던 막중한 소명들을 어깨에 짊어졌던 사람들이었다. 당시의 젊은이들이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당장 민주화를 위해 민주투사가 되는 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민주화가 성공된 후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 갈수 있는 지성과 덕망을 갖춘 지혜로운 국가지도자가 되는 길이였다.

당시의 젊은이들은 세계학문의 중심지인 유럽과 미국으로 고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유학이란 고행 길에 올랐다. 당시 유학 갔던 젊은이들이 이미 50~60세가 되어 세계적인 석학으로 육성되었고, 지금은 대부분 유학지에서 학자로 그 나라의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 이제 이들이 귀국하여 대한민국을 세계화의 르네상스로 만들어 태평성대를 열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저력은 공산주의 혁명투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기 동안에 선진국에서 선진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귀국하여 조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1세기 이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덕망을 갖춘 진정한 주역들은 국내에서 길러진 민주투사들이 아니라 바로 해외에서 선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인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민주혁명에는 민주투사들의 노력으로 민주화란 훌륭한 역사를 해냈으므로 그들의 업적은 민주투사로서 길이 빛나게 된다. 그러나 투사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은,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정치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지전능한 신통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에 걸맞은 소명만을 주셨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한 교육혁명’을 성공리에 시작된 때를 맞추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석학들이 귀국하여 현대적인 르네상스를 만드는 역사에 주역들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귀국하여 후진들을 훌륭하게 육성하면, 교육혁명이 성공하게 되어 대한민국은 빠르게 세계화의 중심 국가가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대한의 아들 딸들이 선진 학문을 공부하기 위하여 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꼭 해외로 고달픈 유학을 떠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앞으로 세계석학들이 세계화의 중심이 되는 한국으로 몰려오게 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국제 언어로 빠르게 확산되게 된다. 그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데 3000시간, 프랑스어는 3500시간, 독일어는 2500시간, 한국어는 2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한글구성의 우수성과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뿐만이 아니라, 글속에 한국의 기상과 얼이 참신하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교육혁명의 성공과 함께 21세기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지구촌 석학들의 활동무대로 세계화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반세기 전처럼 학문을 위해 낮설고 물설고 말 설은 이국땅으로 유학을 떠나야만 하였던 애달픈 고행도 사라지게 된다.



# 제 12 장

## 에필로그

제 12 장

12.1. 교육혁명, 그것은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12.2. 독자들로부터 날아온  
편지들 중에서...

12.3. 새로운 봄을 기약하며...



教育革命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 12.1.

### 교육혁명, 그것은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프로로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필자는 작년 1월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정책과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출판하였습니다.

나의 책- 교육혁명! 그 것은 실로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찾아오시고 후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대학교수, 가정주부, 목사, 선교사, 사업가, 회사원, 음악가, 군인, 민족지도자 등 각계각층으로 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였다.’ ‘책 내용에 배울 점이 너무

많다' '교육혁명은 참으로 시급한 일이다.' '구국반열에 앞장서는 일인자가 되길 바란다.' '전 국민이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각 가정에 한권씩 비치해야 하는 교육성경이다.' '평화의 지구촌을 함께 만들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목숨 바쳐 교육혁명에 동참하고 싶다.' 등 실로 분에 넘치는 찬사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어떤 독자 분들과 기업인께서는 저자가 '국가지도자가 되어 정계, 재계, 교육계를 바꿔 달라!' 고 독려하시고 후원회를 결성하시는 적극성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지난 1년간,  
저자는 독자 분들로부터 커다란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와 경제, 교육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없이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애국자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돈이 되는 지식기반사회, 아이디어로 거부가 되는 소프트화 시대, 교육시스템을 바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돈이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고, 공부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은 적성과 소질에 따라 장인 교육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천직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혁명의 꿈이 반드시 이룩하시길 하느님께 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어느 독자분의 마음과 함께,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 12.2.

### 독자님들의 편지 중에서



다음은 저의 즐겨 ‘교육혁명’을 읽고 보내 주신 많은 독자 분들의 독후감 중에서 선정한 편지 내용입니다.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저의 꿈을 이루어지는 날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온몸을 던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은 각 가정에 한권씩 비치해야 하는 교육성경이다.**

[임혜란, 가정주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읽고 깨달음과 동시에 생각하고 실천함으로써 **구국반열에 앞장서는 일인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백명숙, 방송작가]

**전 국민이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김미영, 회사원]

교육혁명을 통하여 국민의 의식을 바꾸고 개혁하는 일은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오늘날 학교가 무너져가고 학교의 교육제도가 시련에 부딪친 이때 선생님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키운다는 미명아래 교육에 몸담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짐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교육혁명’**이 박사님의 뜻대로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승준, 교사]

국민에 의한 교육혁명에 다 함께 힘을 모아 세계선진국에 앞장서서 조국도 살리고 세계인들과 손에 손잡고 **평화의 지구촌을 함께 만듭시다.** [天誠, 선교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교육혁명에 대한 인식은 학부모들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며, 또한 혁명적인 박사님의 주장은 국가시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관계국가 공무원과 교육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장교 조항영]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점과 그 치유 대책을 알아 점차 **변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강지영, 교사]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혁명의 내용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어 우리 교육제도가 변화되기를 기대 합니다. [박상호, 안동대학교 교수]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사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창조주님께 기도 합니다. [하성호, 사회사업가]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희형, 회사원]

박춘근 박사님의 교육혁명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계와 정계, 재계에 큰 메아리가 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극범, 전 한국교원대, 광주대, 대전대학교 총장]

정말 우리나라의 **답답한 교육현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주셔서 대리만족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조은형, 회사원]

선진지향적인 박사님의 교육개혁 안에 대하여 많은 친근감을 가졌고, **공감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김대영, 전직교사 사업가]

25년이 넘는 세월을 각 분야를 세밀하게 직접적으로 많은 인사들과 기간에 직접 접하고 몸소 확인하시고 계양하시며 고찰하고 계신 박사님의 교육혁명이 성공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미력하나마 **후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박귀옥, 목사]

누구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장인교육을 받고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는 천직**을 찾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교육혁명’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길자, 교사]

교육이 붕괴되는 것이 마치 일선교단에 있는 교사들 때문이라는 보도를 접할 때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는 현실에서 **가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이 책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용현, 교사]

이 책을 읽은 후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과의 교육방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차후에 한국에서도 꼭 교육혁명이 성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상, 회사원]

이 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교육지침서다.

동영욱, 음악가]

우리나라 교육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은 들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엄두도 나지 않지만, 이 책을 보고 **한 가지 방향은 생겼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이병철, 교사]

‘교육혁명’을 정독하고 나니 **신선한 충격을 받아 사나이로서 목숨 바쳐 교육혁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장석호, 사회사업가]

우리나라 교육혁명의 꿈이 반드시 이룩하시길 **하느님께 기도 하겠습니다.** [류제창, 경제학 박사, 교수]

‘교육혁명’은 **국민들을 계몽하는 교과서다.** [라동섭, 태극사상가]

박사님의 교육혁명을 읽은 후 벌써 사회가 많이 개선되고 수선되어 **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박혜련, 민속공예가]

## 12.3.

### 새로운 봄날을 기억하며



저의 책을 마지막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님께서서는 이 책을 읽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뛰고 있는 데,

우리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양극화가 극으로 치닫고 있으며,

돈이 지배하는 위험한 세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무수한 외침을 받았고

위기와 난관을 넘어온 민족입니다.

대륙의 찬탈과 일제의 압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부터

외환위기까지....

그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만세를 부르며,

독재와 권력에 항거하였고 급기야 민족의 독립을 찾았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금 모으기 운동’ 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훌륭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바로 이웃을 이롭게 하는  
훌륭한 인품의 사람을 만드는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우수한 우리국민들이 좋은 정책과  
시스템을 견비한다면, 지구를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뛰어난 소질과 자산을 가진 민족입니다.

작은 것이 기적을 만드는 법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매일 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각자의 재능을 인정받아  
훌륭한 직장(천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꿈을 꾸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위대한 한반도에 희망과 행복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무릉도원’ 같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세계와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봄, 바로 그것입니다!  
독자여러분!

희망의 봄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공과 번영의 봄이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꽃이 지고, 바다의 계절 여름이 올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과 눈 내리는 겨울이 지나면,

더 아름다운 새 봄이 올 것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조국의 새로운 봄날을 기약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2007 년 2 월 4일 (단기 4340년)

**저 자 공학박사 박 춘 근**

책속의 작은 책

박춘근 박사의 교육 체험기

# 돈 한푼 안들이고 박사까지 공부하기

단돈 45 만원의 생활비만 달랑 들고  
낫선 이국 독일로 가서  
대학입학시험 과정부터  
디플롬학위 및 박사학위까지  
15년간 학비 한푼 안들이고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던  
공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이제는  
돈은 없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위해

30년간 준비해 온  
박춘근 박사의 아름다운  
교육혁명에 대한 계획이  
이상이나 분명한 현실이며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도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한다

-도서출판 지구촌교육-





# 1.

## 선진국이란?



선진국이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아니다. 또한 국민 소득만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선진국이란 국민들 누구나 재능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교육기회평등이 구현된 나라다.

즉, 폭력이나 범죄, 테러, 문맹, 극빈자 등이 없는 나라, 누구나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주는 나라, 국민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나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간미를 갖추고 있는 정직한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또한 선진국에는 장인 즉, 생산자들이 중산층을 이루며, 아주 잘사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아주 못사는 사람들도 적어서, 대부분 국민들이 중산층을 이루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다.

그러므로 유럽의 사회구조는 앞서 언급한 양파모양의 선진국형 사회구조를 나타낸다.

민중들이 마음 편히 살수 없는 국가는 미개국이다. 안전이 없는 나라, 총을 마구 휘두르는 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어떤 의미로든지 폭력이 존재하는 나라는 후진국이요, 미개국이요, 원시국가이다.

우리나라도 폭력을 주제로 흥행을 부추기는 영화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폭력을 추방하고, 폭력물을 주제로 하는 영상매체 등을 자제해야 한다.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폭력 영화는 아예 제작도 하지 않는다.

이는 폭력성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가장 불행한 기초를 다지는 역기능이 됨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선진국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선진국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시하고,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소질과 소명에 따라 자기계발(自己啓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능력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된 국가를 말한다.

## 2.

###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



독일에는 본인의 소질, 취미, 비전 등에 충분히 부합되는 직업교육준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학교종류만도 무려 29종류가 있다. 이 29 종류의 학교들은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면 자신의 재능으로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의 학교에 가서 적성에 잘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유럽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직업을 가지게 되므로 직업교육을 가장 중요시 한다.

예능계통인 음악, 발레, 연극 등에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어려운 수학, 과학, 기술 등의 과목들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공학 등에 소질 있고, 예술과목들에는 전혀 재능이 없는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발레나 음악 등의 수업들을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우리나라의 붕어빵 교육제도는 없다.

유럽에서는 기본학교 4학년을 마치면 보통 학교당 아주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은 5학년부터 인문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으로 가는 공부를 시작한다. 인문학교에서 13년 마치고 대학입학 국가고시인 ‘아비투어’(Abitur, 한 과목에 5시간씩 보는 주관식 시험, 100점 만점에 40점이면 합격)를 보고 합격하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정규 대학에 진학한다.

나머지 기본학교 학생들 중에서 한 학교당 소수의 우수한 일부 학생들은 6학년을 마치고 7학년부터 산업학교로 진학하며, 산업학교에서 12학년까지 공부하고 산업대학입학 국가고시인 ‘파하아비투어’(Fachabitur, 한 과목에 2~3시간씩 보는 주관식 시험, 100점 만점에 40점이면 합격)를 보고 합격하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산업대학에 진학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10학년까지 기본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각자의 분야에 따라 3년~5년간 종합학교에서 산학병행교육(Dual-System)을 받고 국가기능사시험(Gesellenprüfung)에 합격하면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다. 경력이 많이 쌓이면 명장학교를 졸업하고 국가명장시험(Meisterprüfung)에 합격하면 상권을 획득하는 명장이 된다.

기본학교에서 교사는 학부모에게 진로를 추천하는데 이에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 만큼 학교 교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명장 또는 학자 어느 길을 가든 소질과 재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평생수입이 비슷한 유럽에서는 굳이 대학진학을 고집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아는 부모들도 대학진학을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부분 학생들은 부모의 가업을 이어가는 직업교육을 대단히 선호한다. 수공업분야의 예를 들면 양복점을 하는 집 아들은 양복기능사가 되는 직업교육을 받고 대를 이어 훌륭한 양복을 만드는 가업을 이어 간다. 그 밖에도 제과점, 이용사, 피자집, 중소기업의 가업을 대대로 이어 가는 것이 전통이다. 보통 가업을 4대~5대를 이어가는 집은 수없이 많이 보았다. 유럽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대를 이어 가업을 이어가는 세계최고의 기술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대단하다.

소질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만 받아도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필자가 이국땅에 와서 대학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고 무모한 것 아니냐며, 왜 골치 아픈 대학공부를 하느냐고 안쓰럽게 물어보는 유럽인들도 많이 접했었다.

### 3.

## 독일의 인재선발제도



객관식 선다형의 우리나라 시험문제와는 달리 유럽의 시험은 모두 주관식으로 되어있으며, 한 문제에 20개들의 부속 문제들을 다단계식으로 풀도록 되어 있다.

(1)번 문제의 답이 (2)번 문제에 대입되어 풀어지고, (2)번 문제의 답이 (3)번 문제에 대입되어야 풀어진다. 이렇게 계속하는 순서에 따라서 20개들의 부속문제들을 풀어 가야 한다. 주관식 시험지에는 이미 정답이 문제와 함께 인쇄되어 있다. 여러 단계를 풀다가, 수험생이 스스로 답을 못 구하면, 주어진 답을 대입하여 계속 풀어가게 되어있다. (1)번 문제가 안 풀려도, (2)번 문제를 시험지에 주어진 (1)번의 답을 대입하여 계속 풀어 갈 수 있다.

독일에서는 수험생이 받은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풀어가

는 지혜를 가졌는가에 대한 여부를 중요시 한다. 이렇게 수험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훌륭한 인재를 선별하는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들을 가장 중요시 한다. 만약 10점짜리 부속문제를 푸는데 있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의 논리는 정연하나 실수로 계산이 잘못되어 답이 틀리게 되면, 채점자는 1점만 감점하고 9점을 준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사고능력이 중요하지 계산이 맞고 틀리는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과정들은 정확하나 답이 틀리면 우리나라에서는 0점이지만, 독일에서는 동일한 경우 100점 만점일 경우 90점으로 훌륭한 인재로 평가 받는다.

시험의 모든 초점들이 창의적인 사고력의 크기를 가려내는데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1등, 2등, 3등식으로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 시험들을 치르지는 않는다. 실력이 대등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서열을 매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 예를 들면, 점수 1점차로 20등이나 석차차이가 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독일의 'Abitur(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는 우리들의 선다형 수능시험과는 전혀 다른 대입자격 '국가고시제도'이다. 시험을 치르는 방법도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모든 과목들을 치루지 않고 하루에 한 과목씩만 시험을 본다. 한 과목당 시험 시간은 5시간이다. 그리고 시험을 이틀간 치른 후 하루를 쉬는 형태로 며칠간 계속 시험을 보게 되는데 모든 시험들을 치루기까지는 한 주일이

소요 된다.

이 시험은 합격 정원은 없다. 대학수학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에 도달하는 개인의 능력 즉, 자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경쟁을 하는 상대평가는 의미가 없다.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이다. 합격점이 매우 낮게 보일지 모르나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서 아무나 쉽게 통과 하기는 힘이 든다. 어떤 해는 합격자가 많을 수 있고, 어떤 해는 형편없이 적을 수도 있다. 출생년도에 따라 수험생들의 두뇌(사고력)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험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과외를 많이 받고, 암기 위주의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력이 따라 주지 않으면 40점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도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을 통해서 문제 풀이식이나 주입식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유아시절부터 다양한 체험 학습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 다양한 주제의 문화 예술 활동 및 교양 도서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면서 길러야만 하는 것이다.

또 대학입학교시에 겨우 합격 했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업도중에 반 이상이 중도에 하차하게 된다.

독일대학은 입학도 졸업도 정원제가 아니라 능력제이다. 뮌헨공대의 기계과 입학생을 보면, 어떤 해는 800명이 들어 올 때가 있었

는가 하면, 어떤 해는 1,500명이 입학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졸업생 숫자는 매년 비슷하다. 이와 같은 유럽의 대학제도는, 어쩔 수 없이 높은 능력의 벽을 실감하게 됨으로,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나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훌륭한 장인교육 쪽에 인생의 승부를 걸게 된다. 어차피 대학졸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독일의 대학은 각 분야별로 국가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한번 대입자격국가고시(Abitur)에 합격하면 평생 동안 유효하다. 물론 주어진 연령에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나 대학입시를 위한 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수허용은 ‘교육기회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번 엄선된 사람들은 최고수준의 대학교육을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있다. 장인학교도 교육기간동안 치르는 모든 시험들 역시 주관식들이다. 어떤 시험들도 역시 창의적인 사고력이 없으면 풀어낼 수가 없다.

유럽의 시험제도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충분히 키우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실험실습과 문화 체험 활동 및 교양 독서를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생활화되게 해야 한다.

## 4.

### 독일의 교육 과정 - 대학입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독자 여러분들께 한국의 대학교육 내용과 독일의 대학교육 내용을 일부분이라도 비교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필자가 체험한 독일 대학입학 자격고시(Abitur)에서부터 클라우스탈 공대의 학부 과정과 뮌헨공대의 전공과정 및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교과목들(Curriculum)을 소개하고, 각 단계별 학습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독일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대학입학자격고시 '아비투어(Abitur)' Curriculum

독일에는 대학을 가기 위하여 기본학교(Grundschule) 4학년과 김나지움(Gymnasium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6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양과정 1년까지의 과정) 9학년까지 도합 13 학년을 수학하고, 아비투어(Abitur) 라고 하는 대학 입학자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은 하루에 한 과목씩, 과목당 5시간씩 치러야 하면 모든 문제는 주관식이다. 외국인이 치러야 할 대학입학 자격고시(Abitur)의 과목 수는 진학학과에 따라서 다르나, 이공계를 공부하려면 물리, 수학, 화학, 독일어가 필수적이다.

독일 대학입학 자격고시(Abitur) 합격자는 그 자격이 평생 유효하며, 대학입학 전에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성년(만18세)이 된 자에 한하여 어느 대학이든 언제든지 입학이 가능한 점이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 학부과정 '포어디플롬(Vordiplom)' Curriculum

[숫자는 수학해야 하는 학기(1/2년)수]

독일대학에는 교양학부가 없다. 입학첫날부터 바로 전문 과목 수업들이 시작된다. 독일에는 학년과 학점들은 없다. 대학에서 보는 모든 시험은 국가고시로 국가가 관리를 한다.

우리나라 대학졸업 수준에 해당하는 '포어디플롬 프뤼퐁(Vordiplomprüfung)'이라는 1차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디플롬 프뤼퐁(Diplomprüfung)'이라는 2차 국가고시까지 합격해야만 졸업을 위한 '디플롬 논문 (Diplomarbeit)'을 준비 할 수가 있다.

1차 국가고시의 필수과목은 주관식 시험들로 대부분 4시간에서 5시간 오픈 북으로 치르게 되며 한편 구두시험들도 겸해서 본다. 선택과목은 2-3시간 정도 국가고시를 본다.

필자가 1 차 국가고시과정에 공부한 과목은 다음과 같다.

물리(2), 물리실험(2), 공업수학(4), 기하학(4), 무기화학(1), 공업역학(2), 재료역학(2), 열역학(2), 유체역학(2), 전기공학(2), 전기공학 실험(2), 재료공학(2), 재료공학 실험(2), 기계설계(2), 압력용기공학(1), 압력용기 설계(1), 공작기계(2), 공작기계설계(1), 기계제도(1), 도학(1), 기업현장실습(1).

1차 국가고시를 신청하기 전에 꼭해야 할 일이 있다. 기업에서 공장현장실습 6개월(기계공학과외의 경우, 선반, NC선반, 목형, 주물,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밀링, 호핑, 연마, 조립)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실습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먼저 마이스터(Meister, 명장)의 승인을 받아 1차 국가고시등록 전 까지 학교 측에 제출해야 한다.

기계공학과외의 1차 국가고시는 전 과목을 2번~3번에 나누어서 방학 때 본다. 어떤 과목이던 낙제할 경우 그 과목만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즉 한과목이 두 번 낙제할 경우 그 과목이 들어 있는 학과들은 전부 퇴학조치 된다. 예를 들어, 수학과목을 불합격한다면 수학과목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대를 퇴학해야 하므로 수학과목이 없는 인문대로 가던지 공부를 중단해야 한다.

1차 국가고시에서 약 50%의 학생들이 퇴학당한다. 기계공학 1차 국가고시의 모든 과목들을 합격해야 '디플롬(Diplom)'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 대학원 전공과정 '디플롬(Diplom)' Curriculum

(숫자는 수학해야 하는 학기 수)

기계공학 1차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면 디플롬(Diplom)과정으로 진학하여 화학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일반, 기계설계공학, 공작기계공학, 산업(생산)공학, 발전소공학, 재료공학, 자동차공학, 조선공학 중에서 원하는 전공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디플롬 과정에서 공부한 과목들이다.

원자력발전소(2), 핵융합발전소(2), 원자력발전 현장실습(4), 화력발전소(2), 화력발전 현장실습(4), 수력발전소(1), 수력발전 현장실습(1), 발전용 가스터빈(2), 항공용 가스터빈(2), 증기터빈(4), 터빈진동공학(1), 수력터빈(2), 자동제어(2), 발전 및 송전 망 제어공학(2), 발전소 경제학(1), 환경보전공학(1), 물리수학(4), 공업역학(2), 열역학(2), 열역학 실습(2), 열 및 질량전달(2), 냉동공학(2), 유체역학(2), 유체역학 실습(2), 발전용 증기발생기(보일러)(2).

학술논문: 이론논문 1편, 실험논문1편, 설계논문 1편 (필자는

8MW 공장용 터빈설계)

이러한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고 학습논문들이 통과 되어야 3번에 나누어서 2차 국가고시를 보게 된다.

## 전공추가 '디플롬 추사츠(Diplom Zusatz)' Curriculum

(숫자는 수학해야 하는 학기 수)

물리수학(편 미분학 포함, 수학과 박사과정)(4), 특수재료역학(1), 합금이론(1), 인체용 바이오 재료공학(1), 금속열처리(1), 금속의 디프제이션 (Difusion der metallischen Werkstoffe)(1).

이 과목들은 의무적인 과목이 아니지만 필자가 지식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공부하고 시험보고 인정을 받은 과목들이다.

## 디플롬 논문(Diplomarbeit)

2차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디플롬 논문(Diplomarbeit)'을 시작할 수 있다. 디플롬 논문 역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디플롬 논문이 통과되면 졸업을 하게 된다. 공학도의 꽃으로 표현되는 '디플잉'(Dipl.-Ing., Diplomingenieur (공학신용장) : 우리나라의 공학석사 + 박사과정 수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며 유럽사회에서는 알아주는 진정한 학문적인 기술자로 엄청난 존경

의 대상이다. 특히 독일 대학에는 자격증 문화가 없다. 왜냐하면 디플롬(Diplom) 과정에서 모든 자격을 갖추는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하기 전문분야 전체에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독일의 대학생이 ‘디플 잉’(Dipl.-Ing.)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고 3 수험생처럼 해야 하는 전공공부를 평균 6~8년 동안 해야 겨우 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재학시절 한눈 팔 겨를이 없다.

### 독일 정규대학을 졸업 하면서

독일 공과대학시절에서 로맨틱한 날은 입학하는 그날 하루뿐이고 긴장은 졸업할 때 까지 지속된다. 통계에 의하면 학생들 중 약 20%가 2차 국가고시(디플롬)를 통과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 한다.

누구나 2차 국가고시가 끝날 때 즈 되면 독일대학 도서관에 있는 본인의 전공분야의 전문서적들은 이미 모두 다 읽었다고 보면 된다.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들 알고 있다. 독일서 공부하려면 암기력 보다는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이 아주 우수하게 길러진 느낌이다. 졸업과 동시에 학우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스스로 갖는다고 한다.

## 박사학위 후보자(Doktorand)

2차 국가고시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약 1%만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박사학위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비로소 ‘독토란트(Doktorand)’라는 박사학위 후보자 칭호와 함께 박사학위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 박사논문 언어와 발표규정

독일 공과대학 기술 분야의 논문은 독일어 외에 외국어로 쓰는 것이 국법으로 금지 되어있다. 독일어가 가능하지 않으면 외국의 과학자가 독일 기술 분야의 훌륭한 박사논문들은 읽을 수 없다.

이런 환경 때문에 영어를 제1외국어로 쓰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독일의 첨단과학기술을 접해볼 기회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번은 필자가 한국전력 본사에서 세미나를 할 때, 한전연구소 연구원들이 필자에게 말하기를 “발전소 공학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독일어로 되어 있어, 아예 접할 기회조차 없다”고 하소연 한 적이 있다.

독일 대학에는 언어장벽이 자연히 기술 장벽 역할을 하도록 속 깊은 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허가 없이는 박사논문의 일부의 내용조차 발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박사학위에 관한 법규, Promotionsordnung

독일은 연방국가 이지만 국토가 미국처럼 ‘주(州)’로 나누어 진 것이 아니라, 중세기에서 근대로 넘어 올 때 16개의 도시국가형태의 왕국들이 합쳐져 신성로마제국(독일제국의 공식호칭)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주(州)’ 라고 표기 하지 않고 ‘국가’라 표현한다.

예로 ‘바이에른 왕국’이 지금은 ‘바이에른 국가’로 호칭하지, ‘바이에른 주’ 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국가마다 자체 헌법이 있다. 독일연방헌법에는 교육과 문화에 관한 이념, 철학, 사상 등 큰 테두리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각 연방을 구성하는 국가들의 헌법에 정해져 있다. 필자가 공부한 곳이 바이에른 국가의 수도 뮌헨이었으니, 당연히 바이에른 국가의 박사학위에 관한 법규(Promotionsordnung)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 받았다.

## 박사학위 시험

박사학위시험 후보자는 먼저 수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인 창작논문을 바이에른 국가박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되면, 그다음은,

박사시험 신청규정에 따라, 수험생 신원에 관한사항이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고 법원에서 대학교에 전달되는 박사시험 신청용 정밀 신원조회(여기에는 일반적인 신원조회 시에 나타나지 않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 박사학위나 국가의 중책을 맡기 전에 엄중하게 신상을 조사하는 제도)를 신청했다.

독일유학중에 한국에서처럼 술 먹고 기분 내면서 행패를 부렸거나, 경찰에 달려드는 공무집행 방해를 했거나, 허가나지 않은 불법 데모에 참가 했거나, 타인의 생명이 위급할 때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스쳤다거나, 대중교통을 3번 이상 무임승차 했다거나, 경미한 폭행을 했을 경우 등등 지성인이 금해야 하는 처신을 한 모든 행적들이 베를린에 있는 ‘외국인 신원기록소’에 아주 상세히 기록·보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유학생들이 모르고 있다가 박사공부와 논문까지 통과 해 놓고 최종 박사시험을 못 보고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음을 독일유학생들은 명심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한국유학생이 술 먹고 경찰을 폭행해서, 구치소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필자가 열일 다 제치고 황급히 담당 검사를 만나 앞으로 박사학위를 할 학생이라고 설명하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검사는 필자의 말을 듣고 그를 풀어주면서, “폭행당한 경찰관이 고소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지금 당장 그 경찰관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정중히 청하

라고 했다.

필자는 검사에게 지금 사과하러 간다고 그 경찰관에게 전화로 상황설명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폭행당한 경찰관은 검사의 설명을 듣고 용서를 받아 주었다.

그 때 혼이 난 후 암전하게 된 그 유학생은 독일에서 착실히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지금은 국가기관연구소에서 조국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어 있다.

원혜공대 기계공학대학 내에 35개의 연구소들이 있는데, 정교수인 연구소장 35명은 제출받은 논문에 이의가 없으면, 서명을 완료한 다음 서명된 서류를 박사학위관리국에 전달한다. 정교수들 중에 누구나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박사학위논문 인정을 거부 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이 있다. 만약 논문내용이 짜깁기 되었거나, 허위 사실이 발각되면 박사학위시험 수험생은 물론 지도교수 까지 국법에 의하여 즉각 파멸된다. 정말로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인정이나 부정은 발 들여놓을 틈을 전혀 주지 않는다.

서명된 서류가 박사관리국에 당도하면, 박사시험 일자를 약 한달 여유를 두고 공식적으로 공고함과 동시에 박사 시험관들과 본인에게 통보한다. 박사시험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일자에 같은 전문 분야의 교수들과 타 대학에서 참석한 교수들이 배석한 가운데, 3명의 시험관 교수들이 한 시간 동안 지정된 세미나실에서 구두시험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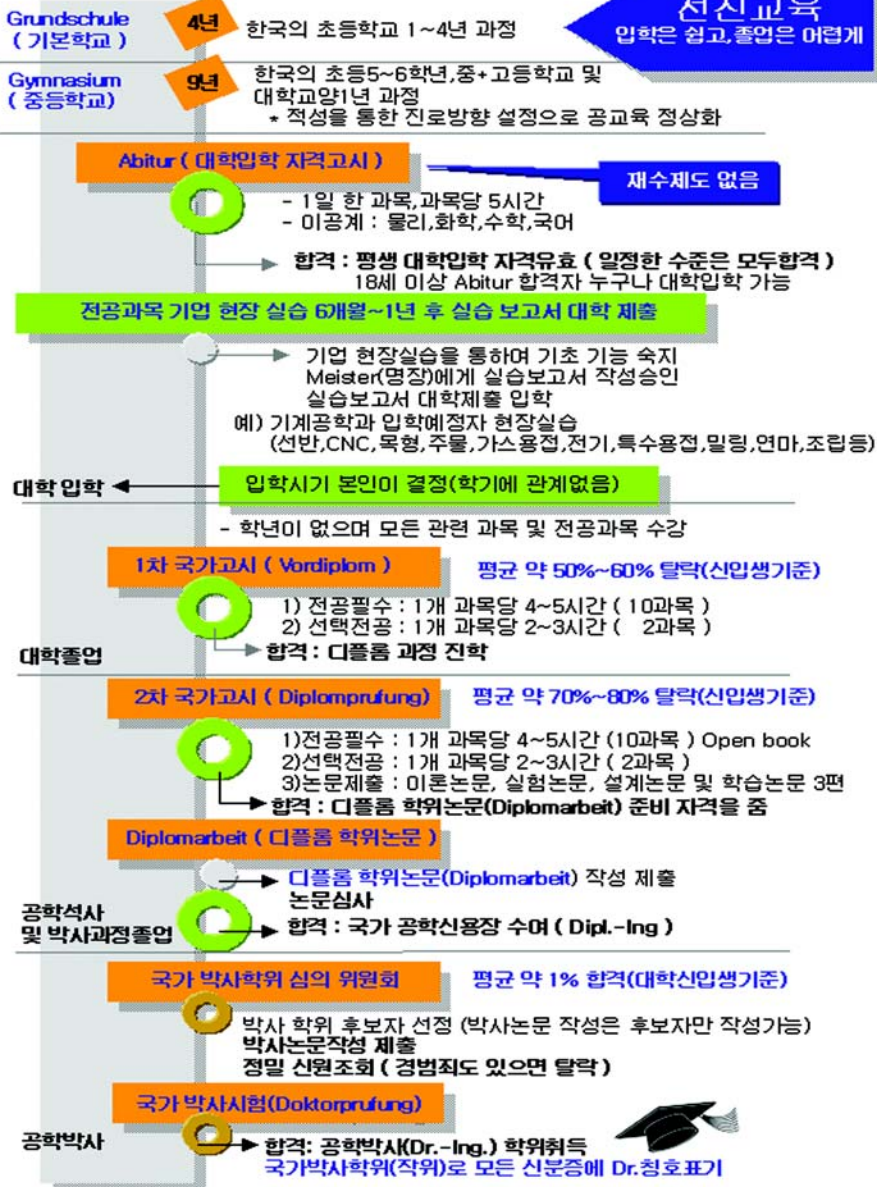
이 구두시험의 특징은 20분 이내에 박사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시험관 교수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발표해야 한다. 논문발표가 끝나면 치열한 학술적인 공방전이 40분 동안 3명의 교수들과 박사학위 후보자간에 벌어진다. 구두시험이 종료되면, 3명의 교수시험관들이 결과에 대해 간단한 토론을 한 후 즉석에서 서명함과 동시에, 시험소감과 함께 합격과 불합격을 알려준다.

합격이 되면 박사학위증이 오프셋 인쇄 될 때까지 약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시험 다음 날 임시박사학위증을 받는다. 필자는 박사학위증이 인쇄되기 2개월 전에 한국에 귀국했다. 독일에서는 박사학위증을 합격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며, 절대로 우편이나 간접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한국주재 독일대사관 직원이 뮌헨공과대학교에 가서 직접 박사학위증을 인수해 외교행낭으로 손수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 필자에게 전달일자를 상의했다. 그리고 독일 박사학위 관리법에 준하여 주한 독일대사가 독일국가를 대표해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했다. 본인이 독일에 체류 중이었다면 뮌헨공과대학교 총장이 필자에게 직접 전달했을 것이다.

독일정부의 품위 있고 신중한 박사학위 관리 제도를 보고, 우리 정부도 명예의 중요함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일은 학자들을 사회적으로 최고의 명사로 존경받는 박사들은 특별히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 독일 박사학위(Doktorwürde)의 전통

독일의 기본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까지 과정소개



독일에 왕정 시절 개교된 뮌헨공대 전통에 따라 바이에른 왕이 수여하던 박사학위는 작위(Doktorwürde)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학위를 받고 중죄를 지으면 박사학위가 취소된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던 기간 동안, 나치정권에 비협조적인 학자들과 교수들은 박사학위와 교수칭호를 취소당하고 수행 중이던 관직을 모두 박탈당했다. 세계 2차 전쟁이 끝난 후 독일국가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그 들이 잃었던 명예들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독일의 박사학위가 세계적으로 인정되며 특히 독일 국내에서는 모든 신분증에도 ‘박사(Dr.)’ 라는 ‘작위’를 명시하고 최고의 존경대상이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학위자의 부인에게도 ‘박사부인’이라는 공식호칭이 붙게 되어 박사는 최고 지성인인 동시에 인기 있는 신랑감이기도 하다.

## 5.

### 유럽의 국가박사 제도



한국에는 ‘박사곰탕’ ‘박사갈비’ ‘연주박사’ ‘구두수선박사’ ‘박사 부동산’ 등등으로 ‘박사’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박사라는 말은 ‘달인’이나 ‘명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박사’는 학문의 새로운 장르를 창작한 ‘석학’을 의미 하는 단어이다. 국가가 수여하는 가장 높은 학문의 명예인 박사학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학문의 기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박사’는 학문의 최고권위를 표시한 고유명사로 제자리를 찾게 해 이 학위를 받은 박사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박사’라는 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박사학위는 두 종류가 있다. 국가에서 수여하는 ‘국가박사’와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교박사’이다. 물론 국가박사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박사학위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과 유럽은 판이하게 다르다. 물론 질적인 능력의 차이 또한 엄청날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이 없으므로 오직 국가박사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금도 자연히 박사학위는 왕이 수여하던 전통을 국가가 계승하므로 이 전통 때문에 아직도 학문의 기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박사학위논문을 쓰기 전에 박사과정이 있어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

독일은 디플롬(Diplom)과정에 이미 박사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디플롬은 미국과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면 박사과정수료와 같다.

독일에도 의과의 경우만은 예외로 전통적으로 2차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공과의 디플롬논문 수준의 논문을 통과하고 의학박사학위(Dr. med.)를 수여받는다. 공과대학은 졸업 시에는 공학 디플롬(Dipl.-Ing.)을 받는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공학 디플롬과 의학박사는 대등한 인정을 받는다. 의학박사가 전문의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공학박사와 대등한 인정받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박사라도 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전공학과의 특성에 따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척도가 다르다.

공업선진국인 독일에서는 공학박사가 공부하는 과정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힘들어서 최상의 권위와 대우를 받는다.

독일은 100명의 디플롬 졸업자들 중에 1명 정도가 겨우 공학박사라는 위상에 도달할 수 있다. 박사학위는 절대로 단순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창조를 위한 학문의 새로운 장르를 펼치는 엄청난 지혜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교육혁명을 통해서 교육기강을 바로 잡아 박사학위의 권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 6.

### 뮌헨공대의 운영과 재정



훌륭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재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교육 선진국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국가예산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이다.

독일연방(Bundesrepublik)들 중에서 한 나라인 바이에른국(Staat Bayern)에 있는 뮌헨공과대학교는 공대로서는 하나뿐인 셈이다. 바이에른국 내에 에어랑엔(Erlangen)이라는 도시에도 또 하나의 공대가 있으나, 이는 뮌헨 공과대학교에 없는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뮌헨 공과대학교를 보충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뮌헨 공과대학교는 독일 바이에른국에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공과대학교인 셈이다. 실용 국토면적이

바이에른국과 비슷한 남한에 국립공과대학교가 하나 있는 셈이다.

정확히 비교하면, 바이에른국의 인구는 서울특별시와 비슷하므로, 서울특별시에 사립 공과대학교는 없고 단지 국립 종합 공과대학교 하나만 있는 셈이다.

뮌헨 공과대학교의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연간 대학의 예산 규모가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대학예산과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학생들 수가 약 2만 명인 뮌헨공과대학교의 예산이 우리나라 160만 명이 넘는 정규대학교들의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교육부예산과 같은 수준이다. 우리들이 80명에게 투자하는 교육비가 독일에서는 학생 1명에게 투자하고 있으니 교육의 질을 비교해 볼 여지가 없지 않는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 어떻게 매년 조달되는가 하는 것이다. 독일연방정부가 우선 뮌헨공대(TUM)예산의 1/4를 부담하고 지방정부인 바이에른 주에서 1/4를 부담한다.

이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재정(財政)인 셈이다. 나머지 1/2은 국가가 부담하는 재정만큼, 대학교 자체에서 연구프로젝트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이 한국의 대학들과 차이가 크다.

우선 독일의 대학들에는 독일국가 전체 안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전문명인들이 총 집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학교수직은 독일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석학이며, 사회적으로 수상이나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석학으로 존경을 받는다.



[핵융합로, 원자로, 원자가속기 등 물리 화학 기계공학에 필요한 주요 연구시설이 있는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TUM) 가르싱 캠퍼스]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TUM) 가르싱 캠퍼스 핵융합에너지 연구소]

대학은 그야말로 ‘큰 대 배울 학’ 大學의 뜻 그 자체다. 학문의 최고봉이며, 최고의 지성인 집합체이다. 독일에는 대학보다 최고의 전문 명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이 이런 명성을 얻고 있는 이유는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를 비롯해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대학에 모여 있기 때문이며, 이 교수들은 박사학위 취득 후 적어도 6년 이상 현장경험을 체험하여 이론은 물론 실기 면에서 누구보다도 월등한, 그야말로 최고전문가여서 프로페소르(Professor)라는 존칭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은 실기가 우선이고 실기에서 얻은 경험을 이론으로 정리하여 의문점을 풀어가는 것이 수업이다. 교수들은 박식한 이론실력에다 실험실습을 손수 할 수 있음은 물론 장인들이 하는 일 까지도 골고루 할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들이며, 모든 교수들은 손수 실험실습을 통한 논문들을 많이 경험한 기술자요, 그리고 이론가인 동시에 현장을 잘 아는 실기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훌륭한 교육과정을 거쳐 교수가 된 이들에게 기업들은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을 위탁한다. 뮌헨공대(TUM)에는 기계과 내에 35개의 연구소들이 있으며 적어도 한 연구소마다 40명에서 200명의 연구소 식구들이 있다.

연구소 내에 공장도 있고 실험실도 있어 중소기업이나 다름없이

보인다. 여기에 기업에서 자신들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최신장비는 물론 충분한 연구비를 제공한다. 기업들이 이렇게 대학연구소에 재정적으로 투자지원을 하면서 연구하고자 하는 과제를 의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직접 연구하는 비용보다도 10배나 싸고, 시간도 빠르며, 질이 좋은 생산성 있는 연구결과를 항상 얻기 때문이다.

대학들에는 많은 연구원들과 학습논문(Semesterarbeit), 디플롬 논문(Diplomarbeit)들 그리고 박사논문(Doktorarbeit)들을 집필하기 위한 훌륭한 연구원들이 항상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므로, 기업에서 의뢰한 과제를 디플롬 논문으로 잘 해결했을 경우에는 대학이 기업에서 얻는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훌륭한 전문직 연구원까지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당 책임교수에게 돌아가는 충분한 연구수당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대학교가 본연의 업무 ‘학문 연구’에 충실하면 재정은 전혀 걱정 할 필요가 없다.

대학과 기업을 다 만족시키는 WIN-WIN 정책이 바로 이렇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지구촌 사람들은 이런 독일교육제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다.

## 7.

### 국가지도자는 대학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키운다!



훌륭한 정치는 훌륭한 지도자로 부터 나온다.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가는 뛰어난 인재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성년이 되는 대학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자양성프로그램을 수립되어야 하고, 잠재력과 능력 있는 학생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여 국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소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자가 독일에 있는 동안 교육받았던 국가 지도자 양성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브람스의 피아노곡 로망스를 들으며, 저자가 체험했던 독일 아테나워 재단 장학생 시절의 추억을 잠시 머릿속에 그려본다. 저자는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4년 대학과정인 포어디플롬 이라고 불리는 독일대학 학사국가고시를 독일학생들 보다 앞당겨 최 단기간인 4학기(2년)만에 합격했을 때, 독일 내 여러 정치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면접을 하러 오라는 통보들을 서면으로 받았다.

독일은 각 정당 마다 미래의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년이 된 대학시절부터 뛰어난 인재들을 전공과는 관계없이 선발하여 국가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가르치며 미래 지도자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정치재단들이 제공하고 있다. 당시 저자가 다니던 뮌헨공대 2만2천명 학생들 중에서 저자를 포함하여 8명이 면접통보를 받았다.

그 당시 저자는 여러 재단 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경제의 부흥, '라인강의 기적'으로 유명하며,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로 존경받는 콘라드 아테나워 전 수상의 이름이 붙어 있는 공익재단인 '콘라드 아테나워 정치재단'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 재단은 현재 독일의 집권당인 기민당(CDU)를 지원하는 정치재단으로 독일

대통령 및 수상을 비롯하여, 많은 전, 현직의 선배 정치가들로부터 훌륭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단본부가 베를린으로 옮겨갔지만 당시는 수도인 본 근교에 있는 재단본부에 도착하여 하루 밤을 지새우고 나서, 아침부터 인재선발에 필요한 과정에 참여했다. 아침 식사 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주면서 두툼한 백지에 ‘인생마스트플랜’을 정확하게 써내라는 것이었다. 나는 평소에 인생목표와 진행계획이 머릿속에 항상 준비되어 있었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필자는 독일에서 공학디플롬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면, 귀국해서 조국인 대한민국의 민간외교관을 겸하는 대학교수를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국가지도자가 되겠다고, 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독일어로 써내려갔다.

점심 식사 후에는 교수님 세분이 한 사람씩 불러서 면접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 평소 공부와 거리가 먼 내용들에 대해서 물었다.

저자는 기계공학을 공부 했고 당시는 ‘에너지와 발전소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첫 질문이 민주주의가 무엇이나? 이었다. 이어서 정치란 무엇이나? 법이 무엇이나? 철학, 정치, 사상 그리고 독일역사 등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문답이 왔다 갔다. 저자는 면접 후 무엇인가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내적으로 아주 흐뭇한 느낌이 들었기에 기분이 좋았다.

면접을 다녀온 후 얼마 안 되어 재단으로부터 한통의 등기편지가 날아왔다. 편지내용에는 면접에 합격한 것은 물론 이미 통장에 장학금이 송금되었다는 소식과 앞으로 받을 국가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이 동봉되어 있었다.

등록금이 전혀 없는 독일에서 받는 장학금은 생활비를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주었다. 즉 돈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도록 주었다.

독일은 여름방학이 3개월 겨울방학이 2개월로 연중 5개월이 방학기간이다. 하지만 재단 장학생들은 방학이 되어도 다른 학생들처럼 놀러 다닐 여가가 없다. 방학기간 내내 재단으로부터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이때부터 남다르게 노력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재단 프로그램도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16시간씩 교육을 받는다. 이는 수상이나 대통령이 되면 집무시간이 평균 16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내공을 미리 키우는 것이다.

교육 내용은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노동, 교육 등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과, 독일역사, 세계사, 회의진행법, 토론, 심포지엄, 강연뿐만 아니라, 인성과 윤리 및 예절, 레크리에이션, 등산, 사교춤까지 교육받게 된다. 게다가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5대 덕목(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강사진은 전, 현직

수상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과 교수 등 이미 이 과정을 거친 선배들로서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정치인으로서 소양과 덕목을 꾸준히 갖추기 위해 재단에서는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주말마다 독일 및 해외에서 까지 각 분야별로 주말세미나(2박3일간)를 개최한다. 모든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전공과 관계없이 지성을 키우기 위해 자주 주말세미나에 참가하게 된다. 이때, 모든 여행경비는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보험까지 재단에서 들어 준다.

한번은 저자가 고속도로 상에서 고속 주행하다가 차가 뒤집히는 엄청난 사고를 냈는데, 재단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올바른 지도자 하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재단의 세심한 배려에 대하여 감탄하였다.

재단에서는 누구나 석학이 될 재목이라면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게 지도자로 키워준다. 물론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전공 외에 다른 학과들을 더 공부하게 권장하여 광범위한 지식을 갖춘 정치가로 키운다. 저자도 재단의 추천에 따라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계공학, 에너지 및 발전소공학을 공부한 후 경제학과 정치학을 추가로 수학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공

부를 해야 한다. 특히 독일의 장관이나 정치가들은 두 개 이상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국제 외교에서 상호 대화가 되고 협력이 되려면 적어도 이들과 수준이 같거나 그 이상의 인재들이 정치가로 양성되게 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의 양성과정과 비교해 보면 독일의 정치재단 프로그램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독자들도 인식하시리라 믿는다.

국가의 먼 장래를 대비하는 아데나워 정치재단의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육성된 정치지도자는 이미 5명의 수상과 4명의 대통령을 길러냈다. 그들 중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독일 통일의 과업을 이룬 헬무트 콜 수상을 비롯하여 에버하르트 전 수상, 키싱어 전 수상, 바이체커 전 대통령, 헤르쾅 전 대통령, 쾰러 현 대통령 등도 모두 이 재단 출신이다. 지금 독일 최초로 여성 수상이 된 메르켈 박사도 이 재단 출신이다. 특히 메르켈 수상은 동독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분이지만 이 재단의 국가지도자 프로그램을 거쳐 수상까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체계적인 지도자 교육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 첨단 과학기술 경쟁시대인 21세기 속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이 저자의 소명중의 하나이다.

## 8.

### 생활비를 대어하는 독특한 장학제도



독일에는 유치원부터 박사까지 학비가 없다. 생활비는 부모들이 아무리 상류층 고소득자일 경우라도 정부가 정하는 기준금액, 1980년대 당시 기준으로 한 달에 500유로(당시 화폐로 1,000마르크) 이상은 안 주는 것이 통상적 관례로 되어 있다. 물론 물가상승에 따라 생활비 기준금액이 조금씩 조정된다.

독일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18세다. 성년이 안 되면 법적으로 독일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일 대학생들은 모두 성년들이다. 성년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생계를 자기 스스로 꾸려가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독일에는 부모들이 성년이 된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은 더 이상 안 한다. 자식들도 역시 돈을 받는 것을 크나큰 수치로 여긴다. 그래서 성년인 대학생들 중에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은 없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사치는 학생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대학생은 학생신분에 맞게 건전한 생각과 정신력을 소유하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최고의 지성을 공부하는 예비지도자로 항상 민중의 존경을 받고 있다. 성년이 된 대학생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생활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지원을 받고 있다.

\* 상류층의 자녀들인 경우에는 매달 생활비 500유로 전액을 부모가 부담한다.

\* 중류층의 자녀들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매달 생활비 일부를 부모의 수입에 따라 대여 장학금을 준다.  
나머지를 부모가 500유로가 되게 채워준다.

\*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매달 생활비 500유로 전액을 대여 장학금으로 준다.

대여 장학금은 대여를 받은 학생이 졸업 후에 직장을 가지게 될 때까지 안 갚아도 되며, 직장을 가지게 되면 그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매달 이자 없이 원금만 조금씩 장기분할 상환 한다. 졸업 후에는 이미 한 달에 3,000유로 이상을 벌게 되므로 결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통해 독일에서는 누구에게나 대등한 교육조건이 주어지고 있으며, 교육기회평등원칙이 존중되는 가운데 대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이는 교육을 평준화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회평등의 원칙에 의해 학생들의 생활을 평준화 하고 있다.

## 9.

### 독일대학에는 없는 것, 31 가지!



우리나라 대학들과 독일 대학들을 비교해보면 ‘없다’는 것이 무척 많다. 그중 일부를 나열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학의 장래에 대해 깊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자!

- \* 등록금 받는 대학은 없다.
- \* 독일대학은 학기시작과 강의시작은 있어도 입학식은 없다.
- \* 졸업식과 학위수여식이 없다.
- \* 학위수여식이 없으니, 박사모와 가운도 없다.
- \* 능력제로 수시로 졸업하다보니 동기동창이란 말이 없다.
- \* 졸업시기가 없는 수시졸업제도 때문에 졸업앨범도 없다.
- \* 캠퍼스를 둘러싼 담도, 교문도 없다.
- \* 대학들의 모든 강의실들은 입실 제한이 없다.
- \* 입학신고식과 신고주도 없다.

- \* 대학 축제도 대학가요제도 없다.
- \* 학생회장 출신의 정치가는 없다.
- \* 대학체육 팀들도 치어리더도 없다.
- \* 대학교 주변에 양품점이나 술집·유흥가가 없다.
- \* 여대생들도 공부 때문에 화장하고 다닐 시간이 없다.
- \*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며 사치하며 허세 부리는 대학생은 없다.
- \* 대학생들이 학비 때문에 유흥가에서 일 하는 법이 없다.
- \* 사립대학이 없다.
- \* 입시과외나 가정교사를 하는 대학생은 없다.
- \* 객관식 선다형 시험제도는 없다.
- \* 다른 교수 배석 없이 단독으로 구두시험을 보는 제도는 없다.
- \* 국가고시제도 때문에 학점이수만으로 졸업하는 제도는 없다.
- \* 교육기회평등 원칙에 따라 재수나 삼수생 출신 대학생도 없다.
- \* 짜깁기 논문, 가짜박사, 어용교수라는 말조차 없다.
- \* 대학총장들이 학교재정을 위해 기부 받는 일이 없다.
- \* 교수들이 부정·부패했다는 말이 없다.
- \* 교수가 연구비 횡령했다는 말도 없다.
- \* 리포트를 돈 주고 사고파는 수치스런 행위들은 있을 수 없다
- \* 출석부가 없으므로 대리출석이란 말도 없다.
- \* 공부 안하고 게으름 피우는 자가 졸업하는 일은 없다.
- \* 졸업을 쉽게 시켜주는 대학은 없다.
- \* 지성인으로서 긍지 때문에 품위를 상실하는 대학생은 없다.

우리나라의 대학들과 비교해 볼 때 생각과 정서의 차이들로 더 많이 있지만 이만 줄이기로 한다.

앞에서 열거한 항목 중에서 대학들의 모든 강의실들은 입실 제한이 없는 이유는 학생들뿐만 아닌 졸업 후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들이나 관심 있는 국민들 누구나 경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대학졸업 후 지식의 반감기를 4년으로 보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범람하는 새로운 지식들을 따라잡기 위해 졸업생이든 재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필요하면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독일 대학시스템은 그야말로 민중들과 함께하는 참뜻의 열린 국민교육제도라고 평가 된다.

## 10.

### 유럽의 가정교육과 조기조업



중세 르네상스 시대부터 독일회사들은 오전 5시에 조업을 시작하고, 늦어도 오전 6시면 모든 회사의 생산라인들이 가동 된다.

여름철에는 한 시간 빠른 조업(섬머타임, Summertime)제도를 전통적으로 실시한다.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온 농경사회에서 우리조상들도 조기조업을 해온 것과 같이, 서양에서의 조기조업은 2,000년 전 로마시대부터 시작하여 지금 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필자 역시 유학시절 방학기간동안 용접 장인으로 독일의 전통적인 자동차부품 생산회사 보쉬(Bosch GmbH) 에서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했었다. 회사의 일반직 사원들과 공무원들은 8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기본학교 산업학교 인문학교 학생들의 수업은 7시에 시작하고, 대학 강의는 9시에 시작한다. 부모님들이 생산직에 종사하는 장인들 가정의 하루 생활주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5시나 6시면 일을 시작하며, 오후 1시나 2시에는 온 가족들이 집에 귀가한다. 그래서 가족들과 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어도 하루에 7~8시간이 된다.

늦어도 저녁 9시면 대부분의 가정은 잠자리에 든다. 부모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독일 아동들은 필자가 자랄 때처럼 자연스럽게 ‘엄부자모의 가정교육’을 받으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가장의 말이면 온 가족들이 존중하고 가장은 가장으로서 무게를 가지게 되고 가정교육도 역시 그에 해당하는 효과와 함께 중량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독일 국민들은 대부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한마디로 “새 나라의 착한 어린이들”처럼 생활한다.

조기조업과 조기수업 등을 실시하게 되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필요도 없고,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집에 돌아오므로 가계에 큰 도움도 되고, 부부들은 서로들의 집안일들을 도울 수 있으므로 금슬도 좋아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목한 가정이 되며,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의 소중함을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

진정한 선진국은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민 생활에 맞추어 독일 공영방송 TV의 마감뉴스는 저녁 8시에 한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 조기조업정책의 위력덕분에 독일국가가 산업화 되어도, 가정이 붕괴되지 않고, 가정교육과 도덕 그리고

윤리가 지속적으로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평범한 비결이 조기조업에 있다. 독일 국민들의 건전한 가정교육과 가족이 화목하는 비결 등은 알고 보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곳에 있다.

## 7.11.

### 교육혁명으로 부자가 된 아일랜드



지금부터 약 15년 전 독립운동을 하기위한 테러와 가난으로 유럽에서 가장 빈국 이었던 아일랜드가 아래의 3 가지 정책들을 성공함으로써 현재는 유럽최고의 부자나라가 되었다.

첫째는 교육혁명을 성공시킨 것이고,

둘째는 노동조합을 무기력화 하여 기업주들에게 엄청난 자율권을 부여했고,

셋째는 아일랜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성의 교육혁명에 주역이 되게 적극 계몽한 두 훌륭한 여성 대통령들, 메리 로빈슨 (Mary Robinson, 1990-1997)과 메리 매컬리스 (Mary McAleese, 1997~)의 강한 의지로 1990년부터 현재 까지 선구적으로 단호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일랜드의 교육혁명을 간략히 소개 하면, 정부가 지난

2001년 대학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바꾸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게 하는 대학의 산학병행 교육제도를 정착시켰다. 인문사회대학에도 비즈니스를 접목시키는 등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 결과 취직이 잘되는 학교가 새로운 명문대로 부상하게 되었다.

교육혁명을 시작한지 불과 5-6년 만에 테러를 좋아하는 폭민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일랜드 국민들이 계몽되어 착한 민중들로 순화되었고,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경영 덕분에 외국자본들이 붓물 터지듯이 들어와 경제를 고도로 성장시켰다.

수 천불이던 국민소득이 현재는 4만 불이 넘는 선진부국이 되니까, 세계 언론들 앞에 독립운동을 위한 테러까지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포하여 국가 이미지를 더욱 향상 시켰다. 해외자본유치는 더욱 더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도 지금부터 아름다운 교육혁명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5년 이내에 아일랜드보다 더욱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

